금수강산



5
1994



금수강산

월간

1994년 5호(루계 제57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조국사

차 례

표지 1면　국보유물모조품을 창작하고있는 창작가들
사진　정명준

표지 4면　5월의 모란봉
사진　김광진

주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4574

좌담회

조국의 운명이자 우리의 운명

참가자
차인빈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
채수범 : 해외동포영접총국 국장
리철재 :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후원위원회 위원장
사회 : 본사기자

사회 :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조선동포들이 각자의 운명을 조국의 운명과 련결시키고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차인빈 :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조국의 운명이자 민족의 운명이며 해내외의 전체 우리 동포들의 운명입니다.》



주석의 가르치심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전민족이 굳게 단결해야 할 근거와 필연성을 밝혀주는 중요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채수범 : 사실상 지구상에 국경이 있고 민족의 구별이 있으며 사람마다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는한 각자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느 민족도 조상대대로 살아오는 나라, 자기 조국이 없이는 살아갈수도 흥할수도 없는것이구요.

리철재 :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조부모들은 일제강점시기인 1920년대말에 살길을 찾아 중국동북지방으로 이주해갔습니다. 당시 피눈물을 뿌리며 선조의 백골이 묻혀있는 고국산천을 리별한 이들이 한둘이였습니까. 언젠가 일곱살난 막내아들이 저에게 왜 우리는 다른 나라 땅에서 사는가고 물은적이 있습니다. 저는 선뜻 대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나라 없던 그 세월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그 수난의 력사를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이야기 할수 있겠습니까.

채수범 : 오늘 수많은 우리 민족의 성원들이 해외 각지에 널려살게 된것은 결국 사람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조국이 없었기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나라에 오는 해외동포들과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 인민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자주 듣군합니다. 어제까지만 하여도 한나라 강토에서 의좋게 살아오던 여러 민족들이 나라의 붕괴로 인하여 령토분쟁, 종족분쟁의 도가니속에 말려들어 처참한 희생을 내고있으며 다른 나라들로 흩어져가고있는 사실은 조국의 운명은 곧 민족의 운명이며 매개 민족성원들의 운명이라는 진리를 실증해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봅니다.

리철재 : 저는 이 기회에 조국은 각자 민족성원들의 운명뿐아니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까지도 담보해주는 삶의 보금자리라는것을 꼭 말하고싶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깁니다만은 몇년전까지 저의 안해는 병으로 하여 첫 아이를 낳은지 10년이 되여오도록 태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안 조국에서는 그 즉시로 저의 안해를 조국에 데려다 평양산원에 입원시키고 여러



달동안 정성들여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의 안해는 두번째 아들을 낳게 되였습니다. 조국이 준 새 생명을 받아안던 저의 심정을 이 자리에서 다 표현할수 없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정말이지 조국은 우리 해외동포들의 운명과도 떼여놓을수 없이 련결되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수범 : 조국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은 누구나 다 조국과 떨어진 인생은 즙이 없는 식물과 같고 날개없는 새와같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기에 그들은 언제나 조국의 운명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있으며 조국이 겪고있는 불행을 자신의 일처럼 가슴아파하는것입니다.

사회 :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의 분렬은 오늘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전도에 큰 그늘을 던지고있지 않습니까?

차인빈 :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근 50년 세월이 흘러갔지만 아직도 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우리 겨레는 참을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리철재 : 민족분단의 여파는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미치고있습니다. 해외동포들끼리도 서로 단합하지 못하고 북의 편이니, 남의 편이니 시비를 가르며 불신하고 배척하는 현상들을 볼 때면 조국통일의 절박성이 더욱 가슴에 사무쳐옵니다.
지난해말 연길에 살고있는 한 동포가 남조선에 있는 어머니가 림종직전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남조선방문신청을 했으나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리유인즉 그 동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졌다는것이였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 동포를 보며 우리는 뼈를 에이는듯한 아픔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차인빈 : 금년 1월 남조선의 명망있는 통일애국인사 문익환목사의 별세에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떠났던 북측 조의방문단의 남행길도 끝끝내 차단되지 않았습니까.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수천년동안 물려받아온 혈통이며 례의범절까지도 지킬수 없는것이 오늘 우리 겨레가 당하는 분단의 비극입니다.

채수범 : 얼마전 미주지역에서 온 한 교포는 판문점을 참관하고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콩크리트장벽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였다.
너무나도 오래동안 민족의 고통을 외면해왔다는 자책이 가슴을 친다. 조선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이 물리적인 차단물을 자기 심장에 박힌 칼로 여겨야 할것이다. 이 칼을 뽑아던지는것이 민족의 최급선무가 아니겠는가.》
정말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인빈 :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정치군사정세는 임의의 시각에 우리 민족을 핵참화속에 몰아넣을수 있는 위험성을 크게 내포하고있습니다. 북과 남이 계속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녹아날것은 우리 민족뿐입니다.

채수범 :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동족끼리 싸워 파멸을 가져오고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길을 택할수 없습니다.
조국의 운명은 통일과 직결되여있습니다.
조국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출로는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단합하여 조국을 한시바삐 통일하는데 있습니다.

차인빈 :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몸소 작성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는 조국통일의 제반 원칙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습니다.
주석께서 내놓으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그 공명정대성과 현실성으로 하여 해내외 전체 조선동포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습니다.

리철재 : 우리 재중동포들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받아보고나서 모두가 조국을 통일할 지름길이 환히 보인다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저는 여러 기회에 남조선동포들도 만나보았지만 그들 역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같은 완전무결한 통일방안은 더는 없다고들 말하였습니다.
문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이 전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단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채수범 : 우리 민족이 단합하지 못할 리유와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일본제국주의의 악랄한 식민지민족말살책동하에서도 우리의 말과 글,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을 끝끝내 지켜낸 민족성이 강한 인민입니다. 더우기 우리 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여 5천년을 한강토에서 단란하게 살아온 세상에 드문 단일민족이며 외세에 의해 민족의 운명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신분과 처지, 신앙에 관계없이 모두가 떨쳐나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해온 자랑스러운 력사를 가지고있습니다.
이런 우리 겨레가 유구한 민족사의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 근 50년동안에 생긴 사상과 제도의 차이로 하여 화합할수 없다고 하는 남조선당국의 주장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 아닐수 없습니다.

차인빈 : 실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다시말하여 사상과 제도, 신앙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다같이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는 사활적인 문제인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7천만 겨레가 민족적리익을 앞에 놓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련방제방식의 범민족통일국가를 얼마든지 세울수 있을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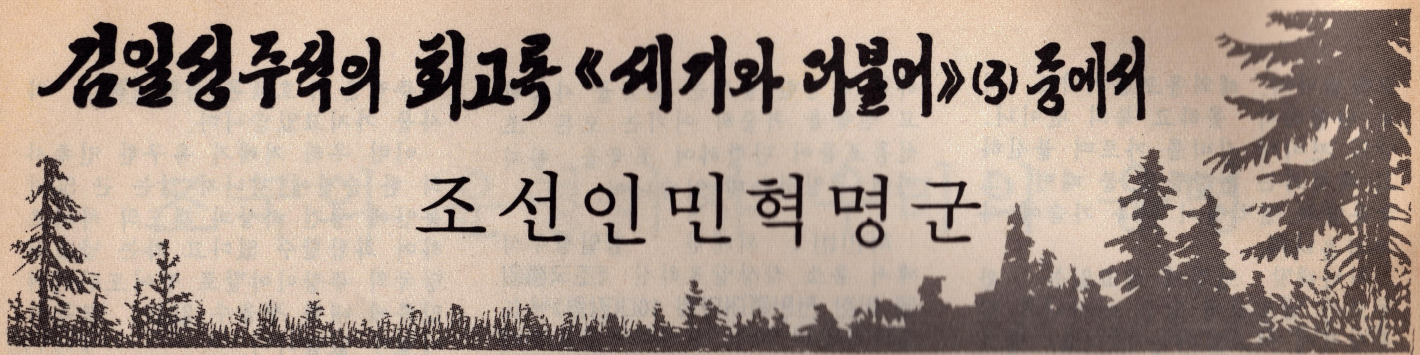
리철재 : 우리 겨레가 통일의 원년으로 약속한 1995년은 한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민족대단결의 해》로 정하자는 범민련 해외본부의 발기에 북과 남의 동포들모두가 호응해나선것은 통일원년의 전야에 기어이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려는 겨레의 드팀없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에는 꼭 《조국통일을 축하합니다》라는 축하장을 조국동포들에게 보내는것이 우리 해외동포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차인빈 :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전체 우리 겨레의 마음을 합치고 모두가 북과 남, 해외에서 범민련조직과 범청학련조직을 확대강화하며 전민족대단결을 이룩해나간다면 멀지않은 앞날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반드시 이룩되고야말것입니다.

사회 : 좋은 말씀들을 들려주어 감사합니다.

김일성주석의 회고록《세기와 더불어》(3) 중에서

조선인민혁명군



…

동기《토벌》의 포화가 멎은뒤 우리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다른 지방의 유격대지휘관들과 함께 그 방도를 심중하게 상론하였다. 각 현에 조직되여있는 유격대의 련대들을 하나의 군으로 통합하는 문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 보나 반일인민유격대자체발전의 합법칙성으로 보나 한시도 미루어서는 안될 초미의 과제로 나섰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것은 장성강화된 유격부대들에 대한 통일적지휘를 더 잘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전투력을 높이며 일제의 대규모적인 공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조치였다.

혁명군문제가 처음으로 우리의 론의에 오른것은 명월구회의때였다. 그때 우리는 반일인민유격대의 전망문제를 론하면서 유격대를 일단 대대규모로 조직해가지고 일정한 기간 질량적으로 발전시키다가 때가 되면 대부대혁명군으로 개편하자고 결의하였다. 물론 이 문제가 회의에서 기본안건으로 상정된것은 아니다. 그러나 혁명군대의 장래와 관련된 이 문제를 두고 대표들은 회의장안팎에서 진지한 론의를 거듭하였다. 대부대혁명군의 가장 열렬한 주창자는 오빈과 박훈이였다.

…

1933년 하반기부터 간도에서는 유격대력량을 통합하고 그 지휘체계를 단일화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한 론점으로 상정되였다. 그것은 적의 동기《토벌》을 격파하기 위한 마촌작전과 수천수만평방키로메터의 판도에서 전개된 영웅적방위전이 가르쳐준 교훈이기도 하였다.

작전을 총화하는 자리에서 중대호상간의 협동문제, 부대의 통합문제를 가지고 열변을 토한것은 소왕청관내에서 90일동안 우리와 함께 시종일관 방위전에 참가한 2중대장이나 3중대장이 아니라 작전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은 한흥권중대장이였다. 한흥권은 마촌작전과 관련하여 자기네 중대가 받은 임무는 로야령을 넘어 동만으로 쳐들어오는 적을 견제하는것이였는데 그동안 적과 접전해본적은 단한번도 없었고 주력부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고 토론하였다. 말하자면 적이 유격근거지를《토벌》할 때 자기가 적의 뒤통수를 쳐야 하겠는데 그러지 못했고 또 그럴수 없었다는것이였다.

우리는 그때 그 토론을 들으면서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한흥권의 토론은 자기비판적인것이였으나 그에게는 사실 비판을 받을만한 전더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자기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한 훌륭한 지휘관이였다.

그러면 그가 왜 자기를 의미도 없고 혁명성도 없고 통찰력도 없는 지휘관이라고 타매하였겠는가. 그가 총화모임에서 강조하려고 한것은 요컨대 무엇이였겠는가 하는것이다. 한흥권이 자기를 근시안이라고 자탄할 때 나는 나대로 그를 지도하는 상급의 자각을 가지고 마촌작전이 남긴 심각한 교훈을 도출해냈다. 그것이 바로 수시로 변화되는 전투정황에 맞게 중대호상간의 협동을 원만히 조직하자면 그를 총괄할만한 지휘, 참모기구가 있어야 한다는것, 그렇게 하자면 지휘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교훈이였다. 지휘체계를 단일화해야겠다는 그들의 요구는 결국 반일인민유격대를 통합하여 정연한 군체계를 갖춰야 하겠다는것이였다.

…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주진, 량성룡 등과 자주 협의하였다.

…

반일인민유격대를 대부대혁명군으로 통합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진도 찬성하였다. 성격이 괄괄하고 대범한 주진은 내가 말을 꺼내기 바쁘게 격렬한 손짓을 해가면서 부대들을 통합해가지고 큼직큼직하게 싸움을 해보자고 말하였다. 나는 큼직큼직하게 싸우자는 그 표현이 못내 마음에 들었다. 그것은 간도의 조선사람들이 한결같이 아끼고 사랑한 호걸남아 주진한테서만 들을수 있는 통쾌한 표현이였다.

그는 조선사람들이 부대들을 통합하여 독자적인 혁명군을 내오게 되면《조선연장주의》감투를 쓸수도 있는데 그런 감투따위에는 신경을 쓰지 말고 하루속히 일을 내밀자고 하였다.

동장영과 같은 사람도 우리의 구상을 지지하였다. 그는 동만에 조직되여있는 반일인민유격대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주동이 되여 조직한 무장력이며 그 구성에서도 조선사람들이 압도적다수를 이루고있으며 중국땅에서 조직된것이기는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조선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의 혁명적무장력으로 되여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동장영의 이 평가는 조선혁명을 운운하는것 그자체가 민족주의로 범죄시되던 당시의 실정에서 아주 공정하고 진보적인것이였다.

동장영도 정당하게 지적한것과 같이 동만은 물론, 남만의 리홍광, 리동광, 북만의 허형식, 김책, 리학만, 최용건 등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만주지방의 당건설에서 선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것처럼 군건설에서도 개척자, 주창자, 령솔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군을 이루고있는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절대다수도 조선공산주의자들이였다.

동장영은 군을 내오되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형식과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할것을 권고하면서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조중쌍방간에 다같은 리익을 주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가 반일인민유격대를 대부대혁명군으로 통합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당파견원 반성위도 국제당로선에 부합되는 정당한 방침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었다.

왕청대대를 함께 이끌던 량성룡으로부터 후에 인민혁명군 독립1사 사장을 했던 주진, 동만특위의 동장영, 국제당파견원 반성위에 이르기까지 리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반일인민유격대를 대부대혁명군으로 통합개편할데 대한 방침을 인식하는데서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통합개편된 무장력의 명칭선택과 그 성격규정에서도 그들은 우리와 대체적으로 견해를 같이하였다.

우리는 1934년 3월에 정식으로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할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투쟁목적에도 맞고 그것을 담당수행하는 정치적력량의 성격에도 부합되는것이였다.

초기에 동만의 일부 지역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공농유격대라고 명명한것은 그 성격규정에서 계급성일면을 지나치게 강조한것으로서 사회적해방에 앞서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선차적인 과제로 내세웠던 우리 혁명의 성격은 물론, 중국공산주의자들이 주관한 동북혁명의 성격에도 맞지 않았다.

항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기 위한 준비사업으로 동만지방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각 현에 있는 유격대 대대들을 련대로 발전시키였다. 그리하여 간도지방 유격대의 총무력은 5개 련대에 달하였다.

각 련대에는 유격대에 대한 당적지도를 사명으로 하는 정치부를 두고 작전, 정찰, 통신 임무를 담당한 참모부서와 피복, 량식, 군의 사업을 보는 후방처를 설치하였다.

왕청련대는 동만지방 련대무력의 시초로 되였으며 항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제1단계 준비사업이 낳은 산아들중 첫번째 산아로 되였다.

항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데서 우리가 제2단계의 목표로 설정한것은 사단체계를 내오는것이였다.

우리가 사단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한것은 마촌작전과정에서였다. 5,000명의 대군을 2개 중대력량으로 대항한다는것은 세계전쟁사에서도 류례가 없는 일이였다. 우리는 소부대에 의한 적후교란천으로 유격구앞에 가로놓인 난관을 타개하면서도 줄곧 우리에게 군단은 몰라도 사단급의 무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몇천명쯤 되는 무력을 가지고 대포를 쾅쾅 쏘아대면서 대부대활동도 하게 되면 얼마나 성수가 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각 현들에 련대들이 이미 조직되고 또 그 력량도 빠른 속도로 불어가는 조건에서 사단을 조직하는것은 한시도 지체시킬수 없는 최대의 과제였다.

우리의 목표는 조선인민혁명군산하에 2개 사단과 1개 독립련대를 선차적으로 꾸리고 그 성과를 확대시켜 장차 수개 사단의 무력을 건설하자는것이였다. 우리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연길과 화룡에 있는 련대들로 하나의 사단을 꾸리고 훈춘과 왕청에 있는 련대를 기본으로 다른 하나의 사단을 또 편성하기로 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과정에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새로운 당지도기관으로 출현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군대안의 당조직에 대한 지도와 함께 지방의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도 동시에 감당하는 무거운 사명을 지니고있었다. 무력의 담보가 없이는 지방당조직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었기때문이였다. 종전까지는 지방당조직들이 군대안의 당조직까지 지도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사업은 1934년 3월부터 5월사이의 극히 짧은 기간에 진행되였다.

이 소식에 접한 유격구역인민들은 앞을 다투어 군대를 지원하고 도처에서 성대한 경축모임들을 준비하였다.

왕청의 녀성들은 축기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었고 공청에서는 아동유희대 축하공연을 마련하였으며 여러가지 체육경기도 벌리였다.

연길의 삼도만유격구역에서는 적통치구역대표들까지 참가한 1,000여명의 군중 대회와 시위가 있었다.

인민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편성에서 조국광복의 앞날을 더욱 뚜렷이 확신하게 되였으며 군대와 일심동체가 되여 항일혁명전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 굳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길림성 간도에 3,000명 있다고 쓴《동방잡지》(1935. 3)

우리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함으로써 보다 넓은 판도에 자유롭게 진출하여 적극적인 대부대활동을 전개할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놓았다. 만일 우리가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지 않았거나 련대나 사단과 같은 대부대의 군사력을 제때에 마련하지 않았더라면 암운에 덮인 조국을 밝히며 높이 타오른 보천보의 홰불도 마련하지 못하였을것이며 무송, 간삼봉, 홍두산, 리명수, 대홍단, 홍기하 등 국내와 만주도처에서 적의 정예부대들을 죽음의 함정으로 몰아넣은 련전련승의 기쁨도 맛보지 못하였을것이다. 동기《토벌》에 이어 유격구를 위협하던 악명높은 위공작전도 파탄시키지 못하였을것이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함으로써 우리는 무력항쟁으로 기어이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려는 조선민족의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파시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경우에 따라서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활동하였다.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동북이라는 명칭은 어느 한 나라를 의미하는 국호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역적개념으로 통용되는것이였다.

우리가 조직한 인민혁명군이 《만주인민혁명군》이나 《중국인민혁명군》이 아니라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명칭으로도 활동한것은 반만항일을 투쟁목적으로 내세우고있었던 중국동지들에게 있어서도 적합한것이였다. 결국 동북인민혁명군은 조선인민혁명군으로서의 사명과 함께 중국공산주의자들의 반만항일위업에 이바지하는 혁명무력으로서의 사명도 동시에 감당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간도와 동변도 일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조선반도전역에서 가장 강대한 무장력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통합개편하는 과정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취한 원칙적인 립장과 용의주도한 정치적아량은 그후 일제를 반대하는 조중인민의 공동투쟁, 특히 중국 동북지방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만일 우리가 당시의 주객관적정세를 고려함이 없이 우리 혁명의 주체로선에 명실상부한 형식이나 명칭만을 고집하였더라면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중국인민의 광범한 지지성원속에서 효과적으로 전개하지 못하였을것이다.

우리는 후날 동북항일련군을 조직한 다음에도 조중항일련합군의 성격에 맞게 중국 동북지방에서 활동할 때에는 동북항일련군이라고 하였고 조선사람들이 많은곳에 가거나 조선에 나와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정황에 맞게 이름을 바꾸어가며 활동함으로써 이르는곳마다에서 조중량국인민의 사랑과 보호 속에 살며 싸울수 있었다.

우리가 운동의 그 어떤 형식적인 측면보다도 본질적인 내용을 더욱 중시한것은 지금의 시점으로 평가해보아도 참으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것이였다. 바로 이러한 원칙적인 견해와 폭넓은 태도로 하여 우리는 언제나 국제주의자로서의 자기 본분을 지키면서도 투쟁의 민족적성격과 독자성을 원만히 고수할수 있었으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중국동지들이나 국제당으로부터 높은 존경과 지지를 받을수 있었다.

당시의 출판물들은 간도에 조직된 인민혁명군을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이름으로가 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썼다.

1935년 상해 상무인서관에서 발행된 《동방잡지》는 동북에서의 빨찌산투쟁에 대하여 쓰면서 간도에 조선인민혁명군이 3,000명 있다고 했으며 이것을 프랑스 빠리에 있는 구국출판사에서 발행한 《동북항일렬사전》에 그대로 전재하였다.

후에 동북항일련군이 편성된 다음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를 2군이라고 부른것도 무리는 아니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성격에 있어서 조중량국인민의 국제적인 반일통일전선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있었으며 제2군안의 조선인들은 조선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독자적임무를 수행하면서 중화민족의 해방운동을 국제주의적기치아래 지원하였다.

간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조직되어 그 전과를 확대해가고있을 때 누구보다도 공포를 느끼고 그 존재의 위험성에 대하여 제일 큰소리로 떠든것은 일본제국주의침략세력이였다.

그들은 동만과 남만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항일무장력을 그 명칭은 어떻든 《김일성군》으로 통칭하여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한후 반일공동투쟁의 성과를 위하여 간도지방에서 공헌영, 채세영, 사충항, 리삼협 등이 이끌던 항일의용군은 제2군의 군대호를 가지고있던 조선인민혁명군과 련합하였는데 이것을 《동북화한인민혁명군》(동북조중인민혁명군)이라고도 하였다.

이런 공정을 거쳐 사실상 동만땅에서는 1930년대 전반기에 벌써 조중항일무력의 련합이 확고히 이루어지게 되였다.

주보중은 자기의 글에서 《항일련군 제2군은 동시에 〈조선인민혁명군〉이였다. …항일유격전쟁중 중조인민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선혈로 얽혀져있었다.》라고 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의 실체를 인정하고 공동투쟁로정에서 력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조중항일무력의 련합을 격찬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사람들도 만주, 특히 간도에 조직된 빨찌산을 《조선인순혈빨찌산》이라고 하였을것이다.

…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것은 단순한 명칭의 교체나 실무적인 재편성을 의미하는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항일유격대가 걸어온 전투적로정을 총화하고 그 성과와 경험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유격대의 지휘체계를 개선하고 대오를 질량적으로 강화하는 군건설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한 이후 우리는 적들의 위공작전을 분쇄하기 위한 적극적인 군사작전을 벌리였다. …

【인상기묶음】

해외동포들은 말한다

다시 올때마다



저는 조국땅을 다섯번째로 밟아봅니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80돐때는 재중조선인동포자전거계주단의 한 성원으로 평양에 왔구요

조국에 올적마다 새롭게 느껴지는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도 평양의 면모가 눈이 번쩍 뜨이게 달라지는것입니다. 이번에 와보니 전번에 왔을 때는 없던 3대혁명전시관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을 비롯하여 새로운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쭉쭉 일어선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조국이 지닌 막강한 경제력과 조국인민들의 드세찬 일솜씨에 경탄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올때는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겠는지…

조국에 올적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실앞에서 솟구치는 기쁨을 억제 못하게 되는군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친절합니까.

우리들이 올적마다 기다렸던듯이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하며 열렬하게 맞아주는 일군들과 봉사자들의 모습은 꼭 헤여졌던 혈육을 대하는것만 같습니다.

해마다 수없이 찾아오는 해외동포들을 맞이하고 보살펴주느라니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허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언제나 반가운 정만이 흘러넘칠뿐이였습니다.

만날수록 더 유정해진다는것이 알립니다.

정녕 찾아올수록 새로워지는것이 조국이고 만날수록 더 정이 깊어지는 조국인민들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살고있는 우리 조선사람들은 조국에 한번 오면 자꾸 오고싶고 막상 오면 발길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비록 조국밖에서 살고있으면서도 외로움 모르고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조선사람이 된 긍지도 생기구요.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의리를 저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살 명분도, 삶의 보람도 없을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힘을 다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성업에 적극 이바지하렵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조선
동포청년학습조 조장 지룡천

가슴아픈 상처

저는 로련 싸할린주 아니와시에서 화물자동차사업소 운전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오매에도 그립던 고국을 한번 꼭 방문해보았으면 하던 소원이 이루어져 난생 처음으로 고국을 방문하여 감격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의 아버지의 고향이 경상남도 김해군이여서인지 이번 고국방문에서 제일 잊을수 없는것은 판문점참관이였습니다. 판문점은 민족분단의 아픔이 어떤것인가를 보여주는 력사의 증거물이기도 하였습니다.

판문점 남측지역 군사분계선을 따라 고국의 허리를 두동강낸 그 흉물스러운 철근콩크리트장벽을 보느라니 자신의 몸과 마음이 두동강나는듯한 아픔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군사분계선도 성차지 않아 저 어마어마한 장벽을 만들어놓고 북남겨레의 혈맥을 완전히 끊어버리려 하고있습니다. 콩크리트장벽은 조선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인위적인 장애물입니다.

저는 싸할린주에서 살면서 고국에 대해 많이 들었고 또 텔레비죤화면을 통하여 북과 남이 통일과 단합을 모색하여 서로 마주앉아 협상하는것도 여러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판문점에는 민족 화해와 단합의 밝은 분위기가 아니라 다치면 터질것 같은 폭풍전야의 긴장과 무거운 정적만이 깃들어있었습니다.

콩크리트장벽은 남조선의 대학생들과 통일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통일인사들의 북행길을 가로막고있습니다. 이 장벽은 고국의 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우리 해외동포들의 마음속에도 그늘을 남겨놓고있습니다.

판문점에 와보니 하루빨리 고국이 통일되여 민족분단의 가슴아픈 상처가 깨끗히 아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했습니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며 반만년을 살아온 우리 겨레는 백두에서 뻗어내린 줄기찬 지맥이 백록담 출렁이는 한나까지 잇닿은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한피줄을 이으며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온 단일민족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북남의 우리 겨레는 근 반세기가 가까와오는 장구한 세월속에 국토와 민족이 두 부분으로 갈라져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참을수 없는 비운을 안고 살아가야 한단말입니까.

절대로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7천만 우리 겨레들이 꿈에도 웨치는 소원은 통일입니다. 북극의 빙산보다 더 두터운 분단장벽이 순간에 녹아내려 저 멀리로 영영 사라질 그날은 반드시 올것입니다. 조국통일의 그날을 위해 우리 해외동포들도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밑에 하나와 같이 의지를 굳혀가고있습니다.

저는 비록 해외에서 살고있지만 통일성업에 미력한 힘이나마 바쳐감으로써 겨레의 한 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마음속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련 싸할린주 조선평화통일
지지위원회 성원 박성도



뜻깊은 2월의 명절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에서—

지난 2월 16일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신절에 즈음하여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하였다.

이날 중국 길림성 연길시 로동자인민문화궁전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52돐 경축보고대회가 있었다.

여기에는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성원들과 중국의 전국각지에서 온 공민대표 천수백명이 참가하였다. 경축보고대회에 이어 영화감상회가 있었다.

이에 앞서 연길시 로동자인민문화궁전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52돐 경축 도서, 사진 및 민예품 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전시대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로작들과 령도업적을 보여주는 화첩들, 혁명전통도서들을 비롯하여 800여종의 5,000여부에 달하는 도서들과 사진 및 민예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52돐 경축연회가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에서는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각 지구협회에서 준비한 예술소품공연이 있었다.

동포들은 말한다

민족최대의 경사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 52돐을 맞으며 우리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는 여러 경축행사들을 주최하였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우



리 재중동포들의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과 애국충정에 떠받들려 모든 행사들은 높은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2월 16일이 오면 각지에 살고있는 우리 재중동포들은 한자리에 모여 이날을 성대히 기념하는것을 전통화하여오고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에 넘치군합니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의 양양한 전도가 있고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재중동포들은 앞으로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참된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걸을것입니다.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부의장 남수남

가목사시에 살고있는 조선동포들은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앞두고 시내에 있는 조선학교 교실에 모여 축하모임을 가지였습니다. 그때 동포들은 저에게 연길에서 진행되는 경축행사에 참가하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바라는 자기들의 마음도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는것이였습니다.

행사에 참가하고보니 불현듯 지난해에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생각이 떠올라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생전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열렬히 흠모하던 남편이였습니다. 재작년 제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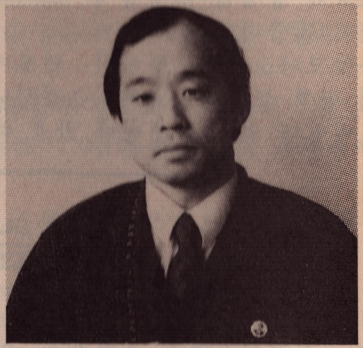
탄생 50돐경축 편지전달계주단 성원으로 조국에 나가게 되였을 때 저의 남편은 위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걱정은 말고 어서 조국으로 가라고, 그이께 자신의 몫까지 합쳐 큰절을 올리라고 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티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르며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것은 우리 재중공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흑룡강성 가목사시 류춘희

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 52돐을 경축하여 진행된 영화감상회에서 기록영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돐》을 보았습니다.

우리 조국의 사회주의가 어떻게



지켜지고 어떻게 승승장구하는가를 보여주는 화폭앞에서 저는 감동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결속시켜 원자탄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일심단결을 이룩하신분도,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분도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였습니다.

오늘 조국인민들은 사상과 령도의 거장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가고있습니다.

민족의 위대성은 곧 령도자의 위대성입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위대한 조국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해외동포들의 가장 큰 자랑이며 행복입니다.

길림성 연길시 김학선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52돐 경축보고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하편지가 회의참가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도서, 사진 및 민예품 전시회
준비를 다그친다





정성을 담아…



전시회장을 돌아보는 참가자들

도서, 사진 및 민예품 전시회
개막식이 진행되였다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고있는 범청학련동포들





연회에 참가하여 춤을 추며 즐기는 동포들



연회장에서는 예술공연도 있었다

옛모습 그대로



수에 《장생도》(일명 《동산의 봄》)를 창작하고있는 창작가들



련속화 《천하제일강산》을 창작하고있다



왕건왕릉제단벽화들

사진 정명준

조국을 방문한 한 해외동포는 《조국에 오니 선조들도 반겨준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이역만리에서도 민족의 선행 세대들을 잊지 않고 살며 고국에서 옛선조들이 남긴 유적유물을 발굴보존하는데 힘을 넣고있는 것을 기뻐하는 심정이 그대로 담겨있다.

우리는 고국에서 유구한 력사의 갈피들을 어떻게 밝혀내고 귀중한 재보들을 어떻게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힘쓰고있는가를 이역에서 사시는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얼마전 조선문화유물창작사를 찾았다.

옛선조들과 함께 살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 유적과 유물을 잘 관리하고 오래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력사 유적과 유물들을 조사발굴하고 복원보존하기 위한 사업은 우리 나라에서 전국가적, 전사회적 운동으로 벌어지고있다.

조선문화유물창작사는 우리 민족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고 빛내이기 위한 하나의 상설기관으로서 력사문화유물들을 복원, 모조하며 창작도 하는것을 사명으로 하여 조직되였다.

문화보존부문에서 오래동안 사업해온 경력을 가지고있는 창작사의 사장 차봉훈은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며 이야기하였다.

《유구한 세월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유적, 유물들중에는 아직 묻혀있는것, 자취를 감춰버리고 희미해진것, 외래침략자들의 파괴와 략탈로 손상되고 잃어진것, 자료적으로는 있으나 실물로는 없는것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실태에서 우리가 하는 복원, 모조, 창작 사업은 그대로 선조들의 넋과 지혜, 슬기를 되찾는 것으로 됩니다.

우리의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결정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의 관철을 위한 나날에 더욱 힘있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조선화실, 조각실, 수예실, 금속공예실, 목공예실, 도자기실로 안내하였다.

《력사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실체와 과학적인 고증에 의해서만 진실한것으로 공인될수 있지 않습니까.

하기에 우리는 창작가이기전에 력사학자여야 하며 선조들이 살았던 유구한 세월에 다 〈살아〉보기도 해야 하지요. 우리는 〈고조선사람〉으로, 〈고구려사람〉, 〈고려사람〉으로 되기도 하면서 그들의 생동한 모습도, 슬기와 재능도 세세히 알아낸답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옛사람들의 그 생동한 모습, 그 재능이 재현되고 있었다.

조각으로, 그림으로 된 왕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애국명장들과 명인들, 뿔나팔을 부는 고구려무사며 말을 탄 고려장수도 보였다.

우리는 《강강수월래》, 《돈돌라리》 등 민속춤이 그려진 12폭대형병풍을 지나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기원하여오던 장생불로를 형상한 수예 《장생도》(일명 《동산의 봄》)도 보고 왕관, 불상과 초대 그리고 고려청자기, 리조백자기를 비롯한 도자기들도 보았다.

차봉훈은 여기서 복원하고 모조한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불상들과 력사미술작품들은 이미 동명왕릉 정릉사며 대성산의 광법사, 묘향산 보현사, 금강산 표훈사 등 여러 절간들, 중앙과 각 도의 력사박물관, 민속박물관, 유적관리소들에 보존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앞으로 안학궁, 신계사, 만월대, 패엽사, 구월산성 복구개건에도 이곳 창작진이 이바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선조들의 모습과 그들이 이룩한 창조물들이 여기서 일일이 숨결을 찾고 생기를 얻으며 세상의 밝은 빛을 보게 되는군요.》

우리가 소감을 터놓자 차봉훈은 이렇게 말하였다.

《겨레의 기대와 믿음에 비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우리의 사업에는 북과 남, 해외 7천만 겨레의 념원이 흘러든다고 생각합니다.

몇해전 나는 조선민속유물전시회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따슈겐뜨에서 많은 동포들을 만났었는데 선조들의 지혜가 어린 문화유물들을 보며 긍지와 자랑을 간직하던 그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민족의 넋과 슬기의 상징이며 민족발전의 재보인 문화유산을 력사주의원칙에서 더 많이, 더 빨리 복원정리하여 겨레를 기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불같아집니다.》

왕건화상이야기

이 창작사에서 되살린 선조들의 모습과 력사유적유물들은 조국의 현실속에 생동하게 부각되여있다.

차봉훈은 왕건화상을 실례들었다.

왕건으로 말하면 918년에 우리 나라에서 첫 통일국가인 고려를 세운 건국시조이다.

지난 1월 31일은 왕건의 생일 1,117돐이 되는 날이였다.

이날 고려시기에 창조된 문화재들이 있는 력사의 도시 개성에서는 왕건왕릉개건식이 있었다.

우리 나라 첫 통일국가의 력사를 전하는 이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을 개건식날 현지에서 우리도 보았었다.

그중 왕건의 화상을 비롯한 여러점의 미술작품들과 벽화에는 조선문화유물창작사 창작가들의 지혜와 노력도 깃들어있었다.

우리는 그때 사람들의 이목이 왕건의 화상에 집중되던 사실을 상기하였다.

《고려태조의 화상을 세상에 내놓기까지는 헐치 않았겠는데요?》

《왕건을 직접 눈앞에 보고 그린것처럼 생동한 화상으로 되여야 했지요.》

차봉훈은 감회깊은 표정을 지으며 고심어린 나날을 추억했다.

왕릉개건전 창작가들은 개성에 있는 왕씨가문 후손들을 만났다. 그들에게는 대대손손 전하여오던 족보책이 있었다.

이 왕씨족보책에 왕건, 고려태조의 화상이 있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력력히 슴배여있는 옛화상이였다.

귀중한 력사물을 찾아낸 창작가들은 한편 왕건의 무덤에서 발굴된 금, 동 띠장식과 옥장식, 술잔 등에 대한 연구를 더욱 구체적으로 하면서 《고려사》, 《고려전사》 등을

비롯한 수많은 력사기록과 력사소설들에 대한 탐독을 하였다.

그들은 이런 과정에 왕건의 생김새와 성격, 인품과 취미, 의상, 력사적배경에 대한 파악을 더욱 깊이 하였다.

마침내 창작가들은 화상복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옥좌에 앉은 왕건, 나라를 다스리는 그의 활동모습…

왕건은 이렇게 그가 고려를 세우며 도읍지로 정하였던 개성땅에 건국시조의 옛모습그대로 되돌아왔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오늘의 후손들을 반기여 고려의 력사를 전해주며…

원시조의 모습, 《천하제일강산》

《이제껏 많은 선조들을 만나보았는데 이번엔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봅시다.》

차봉훈의 말이였다.

그는 우리를 단군화상을 그리는 곳으로 안내하였다.

《지금 창작가들은 이미 전해오던 단군의 화상을 원형으로 새 화상을 그리고있습니다.

머지않아 단군 숭령전이 개건되면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 민족 원시조의 모습을 보게 될것입니다.

단군의 모습은 병풍형식의 련속화 〈천하제일강산〉의 화폭에도 그려집니다.》

우리는 조선화창작가 한영철이 이미 초안을 그린 련속화 《천하제일강산》을 보았다.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성지 평양과 대동강류역을 고조선시기, 고구려시기, 고려시기, 리조시기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집약하여 력사화, 풍속화, 정물화, 서예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보여주려는것이였다.

한영철은 《고조선》부분은 《단군좌상과 그의 이야기》, 《고조선의 수도, 당시 평양풍경》, 《고조선사람들의 생활》, 《고조선문화유물과 유적들》 등의 그림으로 구성되게 된다는것을 초안을 가지고 설명해주면서 련속화의 매 시기에 대한 표상을 안겨주었다.

련속화는 《고조선》에 이어 《첫 봉건국가 1,000년강성대국》, 《첫 통일국가 고려》, 《리조시기》, 《평양성사람들 〈샤만호〉를 수장하다》 순서로 되여있었다.

현대화폭은 대동강반에 높이 솟은 주체사상탑을 보여주는데까지 구상하고있었다.

《사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담은 련속화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생각하여왔는데 단군이 산수수려한 평양에서 태여나 여기서 첫 고대국가를 세웠다는데 대한 과학적해명은 나의 창작구상을 완전히 무르익혀주었습니다.

환성을 올렸지요. 우리 민족 원시조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는 력사화폭을 펼치게 되였으니 말입니다.

고대,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작품에 그려질 선조들, 력사적사실, 풍속, 생활세태의 폭만 보아도 방대하지만 나는 신심을 가집니다. 창작집단이 떠밀어줄테니까요.》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하고 20년가까이 력사미술작품을 그려온 한영철의 말은 미더웠다.

련속화 《천하제일강산》이 완성되면 사람들은 이 화폭을 통하여 우리 민족력사의 일면을 한눈으로 보게 될것이며 그것은 후세들에게도 가치있는것으로 되리라! 우리는 믿어의심치 않았다. 한영철만이 아니라 명인조각, 불상조각에 재능있는 조각가 정운관, 녀성창작가다운 섬세성, 진지성으로 많은 옛그림복원을 해온 문창단을 비롯한 이곳 창작가들모두가 끊임없이 훌륭한 화폭을 펼쳐가리라는것도…

정녕 원시조로부터 시작하여 건국시조들, 유명, 무명의 선조들의 모습은 후손들에게 민족의 정기를 뿜어 애국애족의 피가 끓고 넋이 불타게 하며 민족의 유구성, 단일성, 우수성을 심어주는 더없이 소중하고도 자랑스러운 모습이였다.

헤여지며 하는 차봉훈의 말은 더욱 힘있게 울리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에 대한 옳은 계승이 없이야 우리 창작가들이 어찌 후세에 길이 전할 이처럼 큰일들을 해낼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민족문화유산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그것을 나라와 민족의 재보로 아끼고 순결하게 이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이룩된 현실의 일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사기자 려순옥

좋은 석탄조연제를 개발

최근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 야금연료공학강좌에서는 많은 석탄을 절약할수 있게 하는 발열량이 높은 석탄조연제를 연구개발하였다.

새로 개발한 석탄조연제는 연소촉매, 산화제 및 조절제로 이루어져있다.

이 조연제는 우리 나라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값눅은 몇가지의 원료를 혼합한 다음 3미리메터 정도의 작은 알갱이로 분쇄하여 만든다.

이 조연제를 무연탄에 섞어 쓰면 25%의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필요한 열량을 충분히 얻을수 있다.

또한 일산화탄소 등 여러가지 유해가스가 적게 생기고 굴뚝으로 나가는 먼지량이 줄어들어 공해를 방지하는데도 좋다.

이 조연제는 공업용 가열로, 보이라 등에 쓸수 있으며 가정들에서 쓰는 구멍탄을 빚는데도 리용할수 있다.

우리는 수령복이 있습니다

《로동신문》 편집국 앞

저는 먼저 정신적자양을 주는 우리 《로동신문》 편집국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사이 우리 당보를 통하여 많은것을 배웠고 세상을 보는 눈도 밝아졌습니다.

저는 지난날 종군기자였고 오늘도 여러 신문사들에 명예기자로 등록되여있습니다.

종군기자의 마음으로 글을 쓰는것은 예나 지금이나 제가 우리 당으로부터 스스로 받은 당적분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분공을 잘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증번호 306호를 가진 로당원인 제가 당의 품으로 돌아온지 만 1년만에야 당보에 겨우 한편의 원고를 투고하니 자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조국의 품에 안기자마자 종군기자답게 글을 써야 했으나 몸이 여의치 못해 이제야 당적분공을 수행하게 되는 나약한 당성을 솔직히 반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뒤를 보며 후회말고 앞을 보며 분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늦은 감은 있으나 저는 이제라도 심장이 뛰는 한 당원의 본분을 다하고저 귀 편집국에 어설픈 이 글을 보냅니다.

1994년 3월 18일
리 인 모

인간에 대한 사랑이 인간에 대한 증오를 이긴 력사의 날로 말하면 아마도 제가 분계선을 넘어 사회주의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3월 19일일것입니다.

그날로부터 1년세월이 흘렀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지 못할 나의 1년세월은 한생을 바쳐서도 얻을수 없고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것을 얻고 깨달은 꿈같은 365일이였습니다. 1년을 회고하면 감회가 뜨거워 자꾸 눈물이 납니다.

제가 남에서 보낸 43년이 삶을 빼앗기고 무덤에로 가는 죽음의 낮과 밤이였다면 북에서 보낸 1년은 새 생명을 받아안고 최상의 행운을 누린 새 삶의 분과 초였습니다.

지난날 사람들이 수십년간 타향에 나가 살다가 귀향할 때면 금의환향이라고 출세를 하고 돌아오는가 하면 재산을 모아가지고 온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서울이나 일본 동경에 갔다가 사각모자를 쓰거나 코수염에 나비넥타이를 매고 돌아온 사람도 보았고 《히로》담배를 피우며 깨끗한 향촌의 정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쪽에서 인생의 고목이 되도록 40여년을 살다가 돌아왔지만 가지고온것이란 손잡이조차 떨어진 빈 트렁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 가지고온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가지 우리 수령님과 우리 당, 우리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뿐이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온 가장 소중한 정신적재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은 제가 남쪽에서 인생고초를 겪으며 굳혀진것이였고 남쪽의 많은 지인들의 가슴속에도 그러한 뜻은 간직되여있는것이라 보겠습니다.

저는 그사이 조국의 품에 안겨 살면서 많은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강하게 절감한것은 우리 인민이 수령복을 타고났다는 그점입니다.

제가 50년도에 남으로 떠날 때에는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만고의 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만을 알고갔는데 43년만에 다시 돌아와보니 또 한분의 장군이 계시여 정치를 하시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만민이 숭상하는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동지이시였습니다. 물론 저는 남쪽에 있을 때 《친 지 김 동》으로 불리우시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조국에 와서 그분을 더 잘 알게 되였습니다.

남들은 자기 민족사에 참된 령수를 한분도 모시지 못해 곡절을 겪고있지만 우리 인민은 천하제일의 수령을 두분이나 모시고있어 가슴을 내밀며 살고있으니 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더우기 시국이 복잡한 이때 탁월한 무에 천재적인 문을 겸비하시고 수령님에 대한 각별한 충효를 지니신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동지와 같으신 절세의 영걸을 모시고있으니 지금 우리 인민이 얼마나 큰 덕을 입고있습니까.

저는 **김정일**동지의 위인상과 인간상에 탄복할 때마다 저도모르게 무릎을 치며 우리 인민이야말로 수령복이 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외우군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듯이 우리는 정말 수령복이 있습니다.

1. 장군중의 장군을 모시였습니다

시국이 좋을 때에는 장군을 잘 몰라도 어려울 때에 장군을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형세에서 위인의 높이와 장군의 위용이 돋보이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군은 고난속에 있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인상을 보았습니다.

고난에 대하여 말한다면 제가 조국에 돌아와 생활한 지난 1년세월처럼 역경이 극한점에 이른 시기는 없었을것입니다.

미국과 서방자본주의련합세력이 동방에 있는 우리 조선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핵소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조국은 너무도 큰 어려움에 처하여있었습니다.

저는 남쪽에 있을 때 우리 사회주의의 운명에 대해 당국자들이 늘어놓는 험담도 들었고 언론매체들이 떠드는 어지러운 랑설도 들었으며 지어 북을 동경하는 사람들의 걱정어린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북으로 송환된다는 말이 돌아갈 때 하루는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정체불명의 한 요원이 찾아와 이북으로 돌아가는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것이 어떻겠는가고 하면

서 지금 모스크바도 넘어지고 사회주의도 다 없어지는데 이북으로 꼭 가야 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안기부》요원으로 보이는 그자에게 격한 심정으로 내 조국은 북이지 남이 아니다, 시국이 어떻든 내가 내 조국으로 가자고 하는데 무슨 상관인가, 내 북행길을 막지 말라고 쏘아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국에 돌아온후 시국이 하도 험악해서 늘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정세의 추향과 세계정치의 기상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천하무적의 **김정일**동지를 모신 우리 조국은 끄떡없었습니다.

미국이 남쪽으로부터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으로 우리를 위협하였을 때 명장의 지략과 담력으로 우리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다칠수 없다고 위엄있는 명령으로 도발자들의 기를 꺾어놓으신분이 영명하신 장군님이시고 국제적으로 《핵특별사찰》소동으로 우리 공화국의 최고국익을 침해하려고 하였을 때 령장의 결단과 의지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강도적론리나 강권행위가 통할수 없으며 그 어떤 위협과 봉쇄도 우리를 놀래울수 없다는 또하나의 성명으로 조국의 운명을 지켜주신분도 우리의 장군이시였습니다.

저는 세계가 불안과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누구도 내릴수 없는 위인의 용단과 장군의 위엄으로 조국을 구원해주시였을 때 벌써 우리 조선이 장군을 잘 만난 덕을 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남쪽에서는 《한국》이라고 하는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다스리는 미국을 보아왔는데 북에 와서는 그런 미국과 대등하게 마주앉아 할 말을 다하고 받을것을 다 받아내는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경이적인 사변도 다 우리의 **김정일**장군을 모신 덕이라고 탄복하게 되였습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과 한 약속을 저버리고 남쪽의 설익은 호전분자들을 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겼을 때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응할것이라는 철의 의지로 무모한 광기를 제압하신분도 우리 장군이시였고 그들이 또다시 군사적인 압력의 방도를 선택하려 할 때 선택의 권리는 큰 나라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단호한 선언으로 형세를 뒤집어놓으신분도 천하제일명장이신 우리의 **김정일**장군이시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장군이시야말로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시는 강한분이시였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아도 그토록 강하신 **김정일**동지가 아니시였다면 어떻게 그 준엄한 준전시상태속에서 제가 그분의 품으로 돌아올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저는 생명이 위급했던탓으로 말은 못했으나 마음으로는 북쪽사람들의 얼굴에 넘쳐흐르는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느끼였습니다.

북쪽사람들은 당의 품으로 돌아오는 저를 환영하며 모두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끝없는 인파와 꽃물결 속에서 흘러내린 그날의 눈물은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죽은자를 산자로 환생시켜주시는 수령님과 장군에 대한 감사의 이슬이였다고 봅니다. 그때 벌써 우리 평양의 사회주의는 서울의 자본주의를 이겼습니다.

제가 조국에 돌아와 본것은 모든것이 이기는것뿐이였고 강해진것뿐이였습니다.

작년 7월 전승 40돐을 경축하는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인민군창건 60돐경축 열병식과 무력시위를 기록영화에서 보고서도 감탄했지만 저는 우리의 자위력이 강해진것을 보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마다 지난 전쟁때의 생각이 떠오르고 지리산빨찌산시절이 되살아나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지난 전쟁때에 비하면 오늘의 우리 나라 무장력이 얼마나 강해졌고 일심단결의 힘이 얼마나 세졌습니까.

이것이 다 수령을 잘 만난 덕이라고 생각하니 우리 지도자동지를 모신 행운이 가슴에 부풀어올라서 그날 저는 열병식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손자더러 우리 지도자동지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분이 너무도 좋아서 술을 한잔 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술을 좋아했으나 40년가까이 옥방에서 살다보니 술을 마시지 못했고 요즘은 의사선생님들이 만류해서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도자동지의 덕에 국력이 세지고 천하에 두려울게 없다는 생각으로 너무 기분이 좋아 한잔 하였습니다. 술이란 이렇게 꼭 마셔야 할 때에 마셔야 제 맛도 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수령을 잘 만나면 작은 나라도 사상의 강국, 정치대국이 되고 군사강국이 된다는 말을 쉽게 들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도자동지이시야말로 사상으로 이기시고 지략으로 이기시며 담력으로 이기시는 위대한 영걸이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장군이라고 하면 용맹으로 싸우는 무인을 뜻하지만 우리 조국에서는 사상으로 세상철리를 밝히고 지략과 담력으로 대적을 무찌르는 문무를 겸비한 령수를 장군이라고 부른다고 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칭송하신것처럼 우리의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문무를 겸비하신 령장이십니다.

세계의 정치가들치고 사람들을 묶어세우려고 하지 않는 정치가가 없지만은 그런 욕망을 실현한 정치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묶어세우는것은 욕망이나 강요로는 될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위대한 사상의 힘, 정치의 힘, 사랑의 힘이 있을 때만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우리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정치와 사랑에서 깨닫고있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보아도 그렇고 백두산으로 갈 때 량강도에서 보아도 그렇고 인민군부대나 건설장에 가보아도 그렇고 온 나라 인민이 말을 해도 지도자동지의 뜻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걸음을 걸어도 지도자동지의 의지로 발걸음을 맞추는 일심단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에 온 외국의 공산당 총비서들을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어느 한 나라 공산당 총비서는 저의 손을 잡고 지금 조선의 사회주의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힘을 얻는다고 하면서 현시대를 움직이는 지레대는 **김정일**동지의 손에 쥐여져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우리 지도자동지께서는 세상을 자신의 손바닥우에 올려놓고 움직이신다고 했더니 그도 나의 말에 동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겨야 장군이지 지면 장군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지도자동지께서는 언제나 이기시는 장군중의 장군이십니다.

김정일동지만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시인이 아니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는 가사를 써서 올렸습니다.

제가 남쪽에 있을 때 친분이 있던 한사람이 얼마전에 3국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여왔는데 그는 리형이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는 가사를 썼다는 보도가 《부산일보》에 실렸다고 하면서 그 가사와 악보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리형이 쓴 가사와 같은 세상이 반드시 올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정일동지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신념은 북쪽사람들의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쪽사람들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사대풍토에서 제 정신을 못가지고 큰 나라에 허리아프도록 절을 하며 매워사는 정상배들을 보아오다가 자기 철학을 가지고 대국에 당당하게 맞서 배심있게 민족의 대를 세워나가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정치상을 보고 남쪽의 뜻있는 사람들은 저저마다 령도자를 잘 만나야 인간의 존엄도 빛나고 민족의 자주성도 선양되며 나라의 앞날도 밝다고 하면서 절세의 위인을 모신 민족의 행운을 두고 더없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단군이래 5천년의 우리 민족사에서 강성한 때도 있었지만 탁월한 수령과 장군을 잘 만난 덕으로 오늘처럼 우리 조국이 위대하고 우리 인민이 강대하며 우리 배달민족이 행성의 각광을 받는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2. 인간중의 인간을 모시였습니다

위인은 장군이기전에 위대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덕이 없는 장군은 검이 없는 무사와 같다고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역풍을 이겨나가는 우리 조국의 승리는 어찌 보면 위대한 인간의 승리이며 위대한 인덕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조국에 돌아와 생활하는 나날에 위대한 인간이신 우리 지도자동지의 덕에 매혹되였습니다.

지도자동지의 덕과 인간상은 의리속에 돋보였습니다. 의리는 위인의 인격적향기이고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작년 7월 로병대회때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만나뵈웠습니다. 한없이 인자하시고 부드러우신 그분들을 만나뵙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서툰 시에서 쓰기도 하였지만 인생의 고엽으로 말라버린 저를 푸르싱싱한 청엽으로 소생시켜주시고 영예를 주신 은인들이 아니십니까.

온 세상이 떠받드는 위대한 수령님을 또다시 뵈옵고보니 4월탄신절날에 친히 병원에 있는 저를 찾으시여 어버이의 믿음과 사랑을 주시고도 무엇인가 부족하신것만 같아 자신의 존함을 모신 금시계를 손목에 손수 끼워주시고 40여년동안 그렇게도 품고싶었던 조선로동당원증을, 그것도 몸소 수표하시여 직접 수여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인정, 그 의리가 가슴에 사무쳐올라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의 눈물로 얼굴을 적시였습니다.

저는 로병대회가 열린 이날 우리의 지도자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뵈웠습니다. 그처럼 준수하신 모습으로 웃음을 지으시는 그분께서 저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정겹게 바라보실 때 저는 바로 이분이 저를 구원하여주신 은인이시구나 하는 생각으로 목이 메였습니다.

남쪽의 쓸쓸한 양로원을 거쳐 남해가의 한 농가에 얹히여 살고있던 이 로병을 모래불속에서 보석을 찾아내듯이 알아내시여 조국의 품에 데려오시려고 몇년동안이나 마음을 쓰시고 수백번의 가르치심을 주신 은인이라고 우러르니 저는 그 깊으신 의리와 사랑 앞에서 눈물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남쪽대표단과 마주앉아 회담을 할 때마다 저를 데려오는 문제를 성사시키라고, 세계의 량심을 불러일으키며 리인모송환투쟁을 벌리라고, 안해와 딸이 편지를 보내여 평양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 용기를 내게 하라고, 어느해 정초에는 올해에 무슨 일이 있어도 리인모를 꼭 데려와야 한다고, 리인모가 생명이 위급하다는데 그냥 남쪽에 있으면 죽을수도 있으니 빨리 조국에 데려다 살려야 한다고, 리인모를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께 보고도 하지 말라고, 리인모가 처자와 만나 한지붕밑에서 살면서 손자손녀를 앞세우고 모란봉에도 오르고 평양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보아야 마음을 놓겠다고 하신 인자하신분이 아니십니까.

제가 막상 돌아올 때에는 리인모가 온다는데 우리 당의 간부들이 판문점에 나가 마중하며 온 개성시민들과 평양시민들이 모두 떨쳐나서 환영하라고, 명의들로 치료대를 뭇고 명약도 아낌없이 다 쓰라고, 리인모가 살 집도 좋은 집으로 주고 료리사도 붙여 구미에 맞는 음식을 대접하라고, 리인모가 완쾌되면 로병대회주석단에도 수령님곁에 앉히고 전승기념 열병식장에서도 주석단에 오르게 하자고, 백두산에도 가보고 고향에도 들려보라고, 고향의 인민학교를 리인모인민학교로 명명하라고 세심하게 보살펴주신 우리 지도자동지이시였습니다.

더우기 제가 놀란것은 지난해 7월 피아노를 선물로 받던 때였습니다. 해방후 저의 안해가 학생들에게 음악공부를 가르쳐주면서 하루는 풍금을 사달라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돈을 마련하면 사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을 40여년동안이나 지키지 못하여 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동지께서는 저의 이 마음까지도 헤아리시고 친히 피아노를 선물로 보내주시여 제가 풀어주지 못한 안해의 소원까지 풀어주시였습니다.

저에게 이불을 일식으로 보내주신 지도자동지의 은정도 더없이 뜨겁습니다. 제가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느 한 나라에 있는 해외동포들이 지도자동지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에서 지성껏 지어드린 귀한 이불을 받으시고는 저를 먼저 생각하시며 남쪽감방에서 언제 한번 이불이나 제대로 덮어보았겠는가고, 자신보다 리인모가 덮어야 한다고 따뜻이 이르시며 자신께서 쓰셔야 할 그 이불을 친히 저에게 보내주신 자애로운 우리의 지도자동지이시였습니다.

며칠전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지도자동지께서는 제가 조국에 돌아온지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였다고 합니다.

…우리 당이 1년전에 왜 리인모를 데려오자고 하였는가. 리인모로 말하면 34년동안이나 옥중에서 조국을 위해 싸운 전사이다. 아무리 정세가 긴장하고 준전시상태라고 하여도 리인모를 데려와야 우리가 혁명동지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것으로 된다. 우리를 믿고 30년~40년을 싸워온 동지인데 우리가 그를 구원하여주지 않으면 누가 구원하여주겠는가. 혁명가들에게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의리는 생명과도 같은것이다. 나는 그전에 외국의 한 책을 본 일이 있는데 나뽈레옹이 모스크바를 쳐들어갈 때 많은 프랑스병사들이 죽거나 포로가 된 이야기가 씌여져있었다. 그런데 나뽈레옹이 망하고 다른 왕조가 집정한후 프랑스포로들을 데려가라고 하였으나 나뽈레옹때의 포로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고 한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프랑스포로들의 운명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된것은 결국 령도자를 잘못 만났기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였다. 나는 리인모를 데려올 때 그전에 보았던 이 책에 대한 생각을 다시하면서 어떻게 하나 그를 꼭 데려와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어렵기는 하였지만 투쟁을 벌려 리인모를 데려왔다. 세계에는 옥중투쟁을 한 혁명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남조선에서와 같이 30년~40년을 옥중에서 지조를 지켜 투쟁하면서 인생의 전부를 보낸 그런 혁명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투쟁한 동지들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 나는 이것이 우리 당이 전사들에게 베풀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혁명적의리가 깊으신 뜨거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지도자동지를 위함이라면 이 로병이 한줌의 흙으로 변해도 장군님을 받드는 고임돌로 굳어지고싶은 일편단심으로 살고있습니다.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처럼 혁명적의리가 깊으시고 사랑과 인정이 두터우시였습니다.

저는 조국에 와서 《빛나는 삶의 품》이란 영화문헌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그 영화의 장면들을 보며 저는 **김정일**동지의 인간상에 매혹되여 저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지도자동지를 강하신 분으로만 알았는데 그분께서는 정말 인정이 많으시고 눈물이 많으신 부드럽고 정다운분이시였습니다.

한 일군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지방에서 현지지도를 하시던 그분께서 전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억수로 퍼붓는 비를 맞으시며 사품쳐 흐르는 강물우에 놓인 철교의 침목을 하나하나 아슬아슬하게 더듬어 건느시며 그날밤중으로 평양에 도착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나라의 지도자께서 키우신 전사에 대한 정을 잊지 못하여 갑자기 불어난 깊은 산 계곡의 강물우에 아아하게 놓여있는 철길을 몸소 걸어넘으시는 그분의 초상은 그대로 사랑의 조각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남달리 눈물이 많으시였습니다. 세속에 이르기를 참된 영웅에게는 눈물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도 눈물이 많지만 **김정일**동지는 눈물이 더 많다고 말씀하시였다고 합니다.

한 전사가 병상에서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지도자동지께서는 비보를 들으시고 황황히 오시여 싸늘한 전사의 얼굴에 자신의 볼을 부비시며 내가 왔는데 빨리 일어나라고, 이렇게 눈을 감자고 나에게 그렇게도 정을 남겨두었는가고, 앓으면서 그렇게도 나의 애를 태우더니 가서도 나를 울게 하는가고 하시며 우시고 또 우시였습니다.

저는 이런 영화장면을 보면서 용장일수록 눈물이 많다는 느낌이 들어 《장군님!》하고 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인정이 메마르고 덕이 없으면 울지 못하는 법입니다. 정이 많고 사랑이 많아 남달리 가슴아파할줄 아는 위인만이 그렇게 울수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민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제일 귀중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 지도자동지의 애민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우리 지도자동지의 천하지대본이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신은 우리 지도자동지의 정치적 신앙이라고 봅니다.

사상도 인민대중중심의 사상이고 제도도 인민대중중심의 제도이며 정치도 인민대중중심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인것이 제가 안겨사는 품입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말은 우리 지도자동지께서 처음 쓰신 말씀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남쪽에서 신세를 진 마음이 착한 김상원농민의 집에는 네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에서 살고있을 때 학비때문에 오고가는 걱정어린 말을 늘 들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지금 우리 집에는 중학생인 손자애와 손녀애, 대학생인 손녀가 있는데 제가 1년세월이 되도록 그 애들이 집에 들어와서 학비때문에 울고불고하는것을 한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세상사람들이 다 놀라는 이 무료교육제도에도 우리 수령님과 우리 지도자동지의 《이민위천》의 사상,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꽃피여나고있지 않습니까.

제가 남쪽에 있을 때 부산대학교부속병원에 입원하였었는데 그때 엄청난 치료비때문에 저도 걱정이 컸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재야인사들의 걱정이 더 컸었습니다. 인정은 있어도 금전이 딸려 걱정하는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바늘방석에 누워있는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북에 와서도 몇달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때문에 몹시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안해에게 치료비때문에 집에 부담이 많겠다고 말했더니 안해가 하는 말이 무상치료제이기때문에 돈 한푼 내지 않으니 걱정 말고 치료나 잘 받으라는것이였습니다. 정말 우리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사랑과 고마움은 사람을 울게 하는 혜택이였습니다.

저는 이런것을 두고 수령을 잘 만난 수령복이라고 말하고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지도자동지의 겸허하신 성품에 대하여서도 느낀바를 한마디 쓰려고 합니다.

지난해 전승 40돐경축 열병식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주석단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뵈옵게 되였습니다.

원래 저는 그날 원수복을 입으신 지도자동지의 모습을 뵈올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뵈온 지도자동지의 복장은 원수별이 새겨진 장군복이 아니라 옛날 제가 풍산에서 살 때 입던 닫긴형의 수수한 옷차림이였습니다.

우리 지도자동지의 소박한 옷차림을 보는 순간 저는 또한번 그 겸허하심에 경탄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소박과 겸손은 미덕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지도자동지이시야말로 《위대한 평민》이시였습니다.

그러니 인민들이 왜 우리 지도자동지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미덕의 힘은 강합니다. 위대한 사랑과 미덕을 지니시였으니 어찌 만사람들이 지도자동지품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인간중의 인간이십니다. 우리 인민이야말로 인간중의 인간을 령도자로 모신 수령복이 있는 인민입니다.

3. 제스스로 가다듬는 마음

우리가 수령복을 타고난 인민이라면 위대한 수령을 잘 모셔야 한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령을 모시는 내 마음속에 어지러운것이 있지 않는가고 스스로 눈을 밝히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원래 제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받들어모시는 전사의 구실을 잘하자면 지난해 판문점을 넘어오자마자 당중앙에 먼저 찾아가 그간의 활동에 대한 보고부터 드려야 하였으나 그만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당원으로서 처신을 바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비록 인생의 황혼기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모시고 몸으로는 수령을 철석같이 옹위할 성벽이 될 각오를 가지고저 합니다.

우리 수령님과 우리 지도자동지를 순간도 잊어서는 안되겠다고 저는 늘 자신을 채찍질하고있습니다. 만일 그분들을 순간이나마 잊는다면 그분들의 권위에 그늘을 지우는 일도 무심히 스쳐버릴수 있습니다.

지난해말에 한 해외교포인사가 우리 집을 방문한적이 있었는데 54살이나 된다는 그가 조선말을 몰라서 통역을 가운데 앉혀놓고 떠듬거리는것을 보니 불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다 못해 한마디 하였습니다. 나는 40년나마 남쪽에서 살면서 경상도사람도 만나고 서울사람도 만났지만 남쪽말씨는 배우지 않고 계속 이북말을 썼다, 나이도 적지 않은 사람이 제 나라 말을 할줄 모르니 안됐다, 나는 지금 외국인을 만난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다, 사람이 잊을게 있고 잊지 말아야 할게 따로 있지 우리 수령님과 우리 지도자동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존함만은 꼭 조선말로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포인사는 저와 상봉의 기쁨을 나누려고 찾아왔다가 부끄러움을 느끼며 앞으로 조선말을 인차 배워가지고 다시 찾아와 조선말로 인사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 사람처럼 수령을 모시는 자세가 깨끗하지 못할가봐 걱정이 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을 또 채찍질하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목숨바쳐 지킬 결심도 굳히고저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살아보아야 사회주의가 좋은줄을 알게 되고 사회주의에서 살아보아야 자본주의가 나쁜줄을 알게 되는것 같습니다.

저는 남에서도 살아보고 북에 와서도 살아보니 죽어도 못버릴것은 사회주의요 살래도 못살곳은 자본주의임을 통감하였습니다.

남조선은 소수의 가진자들은 호화판에 사는 부익부의 세상이지만 못가진 다수의 근로자들은 눈물속에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빈익빈의 세상입니다.

다수의 가난우에서 소수가 호화를 누리는 세상이 참세상일수 없고 그러한 삶이 참삶일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나 물건은 오늘 있다가도 래일은 없을수도 있고 래일 있다가도 다음날에는 또 없을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도 빈자도 없이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게 하는 사회주의만은 언제나 우리 인민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령을 모시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마음은 항상 깨끗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에서 받을줄만 알고 나라에 바칠줄은 모르는 사람의 마음은 맑지 못하고 어지러운 법이라고 봅니다. 더우기 모든것을 공짜로 가지고싶어하는 리기심을 순간이나마 가지면 안되겠다고 저는 늘 자기에게 말합니다. 만일 자기만을 생각하는 리기심이 있으면 수령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식구들이 덕을 입기만 하는데 버릇되면 리기심이 생기고 정신이 병들가봐 걱정합니다.

받는데 습관될것이 아니라 바치는데 습관되여야 수령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수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는 당조직관념이 부족한 점도 뉘우치고있습니다.

당에 당비를 바치는것도 당과 수령에게 자기의 순결한 충효의 마음을 바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당비를 바치고있습니다. 지난해 어버이수령님께서 저를 찾으시여 친히 당증을 수여하시자 저는 그 다음날로 남쪽에 가서 43년동안 물지 못했던 당비를 한꺼번에 바치였습니다. 늦기는 하였지만 밀린 당비를 바치는것이 당원의 도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당비를 물면서 당조직앞에 그동안 마음이 어지러웠던적은 없었던가고 스스로 자신을 총화하며 옥살이가 하도 고통스러워 순간이나마 자결할 생각도 하였고 전향문 생각도 해보았던 점을 부끄럽게 돌이켜보았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그저 건강해서 텔레비죤화면에 얼굴만 보여도 힘이 되고 기쁘겠다고 말하는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앞에 큰 위훈도 세우지 못한 제가 나라의 큰 국록을 받고있는데 일을 안하면 되겠습니까.

복속에서 복을 모르는 때도 있다고 합니다.

남쪽에서 우리 수령님이 너무도 그리웠고 우리 당의 품이 너무도 그리워 언제이면 이 소원이 이루어질가 애태워온 저로서는 모든것이 성취된 오늘 누리는 만복을 잊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시각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렵니다.

—아침에 깨여나도 수령님과 지도자동지 생각부터 하자.

—일을 하여도 마음속에는 언제나 수령님과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일하자.

—밤에 잠들 때에도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안녕을 먼저 기원하자.

—꿈을 꾸어도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에 대한 꿈을 꾸자.

—수령복을 누리면 수령께 충효를 바칠줄 알자.

도시소개

사리원시 (2)

해방전에 뒤떨어진 상업소비도시였던 사리원은 오늘 기계 및 금속가공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중공업과 방직공업, 식료공업, 피복공업, 일용품공업 등 경공업을 가진 공업도시로 발전하였다.

사리원시는 황해북도에서 가장 큰 기계공업기지로서 도안에서 필요한 기계 설비와 부속품들을 생산공급할뿐아니라 전국적의의를 가지는 설비와 기계들도 적지 않게 생산하고있다. 여기서 큰몫을 맡고있는 사리원 종합기계공장, 방직기계공장, 뜨락또르부속품공장에서는 대동강하류공업지대의 제철소, 제강소 및 기계공장들과의 련계밑에 보이라, 염색기, 착암기, 시추기, 고치실뽑는기계, 뜨락또르부속품들을 생산하고있다.

또한 광산기계공장, 종합주물공장, 정미기계공장, 석도금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사리원시에서는 방직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이 또한 발전하였다.

사리원방직공장은 방적, 방직, 염색, 날염 등 종합적인 생산체계를 가진 천생산기지로서 40여종의 천을 생산하고있다.

이 공장의 모든 생산공정은 흐름식으로 고도로 자동화되여있다.

사리원곡산공장에서는 도안에서 생산되는 강냉이로 농마, 사탕, 기름을 비롯한 여러가지 식료가공품을 생산하여 도내 주민들에게 공급하고있다.

사리원시 도림리에는 사리원과수농장이 자리를 잡고있다.

이 과수농장에서는 주로 포도, 사과, 배 등 갖가지 과일을 생산하고있다.

조국해방전쟁(1950—1953)의 불길이 타오르던 1950년 8월 최전선을 현지지도하시고 돌아오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도림리 마산고개등마루에 오르시여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쑥대만 무성하게 자라던 이곳에 사리원과수농장의 터전을 잡아주시였다.

오늘 이 과수농장은 850여정보의 과수밭과 기계수단을 가진 과일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

사리원과수농장의 기술진은 고심어린 탐구로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새 품종의 청포도를 육종하여 포도의 수확고를 높이였다.

이 과수농장의 주변에는 과일가공공장이 건설되여 생산되는 갖가지 과일로 통졸임과 쨤, 과일단물을 그리고 유명한 사리원청포도로는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고있다.

사리원시는 또한 문화도시로서 발전된 교육과 보건을 가지고있다.

해방전에는 1개의 대학도 없던 시에 오늘은 계응상대학, 리계순대학, 장수약학대학, 사리원탐사단과대학 등 여러개의 대학과 전문학교들이 있다.

계응상대학은 농촌경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대학이다.

이 대학에는 농학부, 축산 및 잠학부, 과수학부, 농기계학부를 비롯한 10여개의 학부와 강좌들 그리고 박사원, 연구원, 교원양성반, 농업과학연구소가 있으며 여러가지 설비를 갖춘 수십개의 실험실과 표본실, 기계 수단과 설비를 갖춘 종합실습농장이 있다.

대학은 주간 및 통신 교육과 교원양성반, 연구원을 통하여 수많은 농업일군들을 양성하고있다.

최근 이 대학교원들은 통신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현지에 내려가 통신생들에게 생산과 리론을 결합시켜가며 지식을 넓혀주고있다.

해방전까지 사리원에는 1개의 병원과 개인의원이 몇개 있었다.

오늘 사리원시에는 도인민병원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의료시설을 갖춘 시인민병원, 고려병원 그리고 동종합진료소들이 있다.

사리원시에는 주민들이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는 도예술극장과 문화회관, 사리원청년경기장과 도서관 그리고 예로부터 경치 좋은곳으로 알려진 정방산과 경암산 명승지들이 있다.

경암산기슭에는 사리원문화회관이 솟아있다.

문화회관은 아름다운 경암산을 배경으로 하고 거리를 향한 앞은 소광장, 그 오른쪽은 운하, 왼쪽은 호수와 린접되여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련상케 한다.

3층으로 되여있는 회관의 관람석은 800석이다.

또한 경암산기슭에는 사리원청년경기장이 자리잡고있다.

어제날에 그리 크지 않은 규모로 건설되여 운영되던 사리원경기장은 오늘 종합경기장으로 면모를 바꾸었다.

이 경기장에는 륙상경기와 함께 축구, 롱구, 배구 등 여러가지 체육종목의 경기들을 동시에 할수 있는 충분한 시설들이 마련되여 국제, 국내 경기들과 집단체조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체육행사들이 진행된다.

사리원시의 북쪽에 솟아있는 정방산과 사리원시에 자리잡고있는 경암산은 경치가 아름답고 고적들이 많다.

오늘 이 산들은 명승지로서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사리원방직공장 직포직장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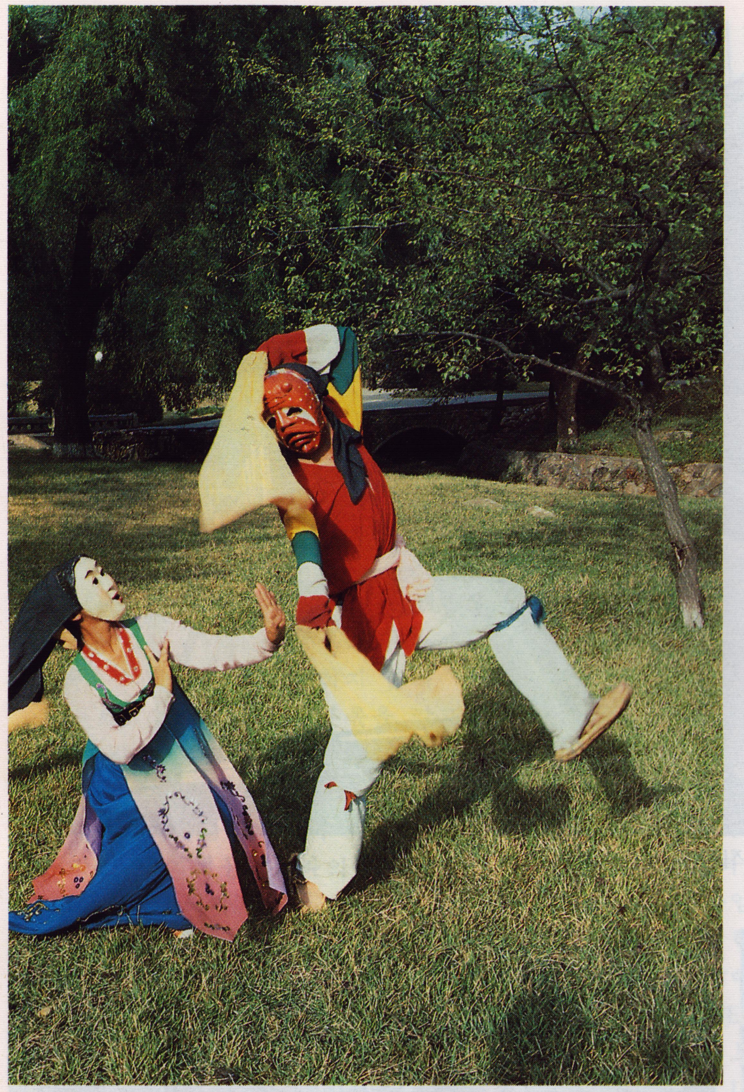
계획을 넘쳐하고



경암수출피복공장에서의 옷생산



사리원의 저녁



봉산《탈춤》은 이곳 인민들의
전통적인 오락이다



사리원청포도를 수확하고있다



경암포도술 생산

사진 김광진

사리원 미곡협동농장벌의 일부



모란봉합영회사





옷생산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도 자주 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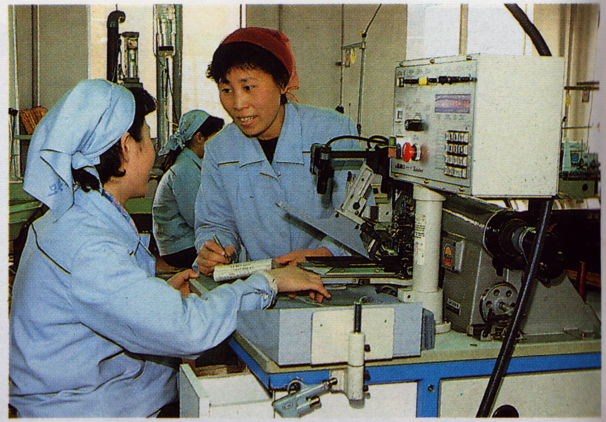




선행작업인 재단이 한창이다



피복모형프레스 작업



일군들은 항상 기대공들과 의논한다



옷마다 정성을 담아…



재봉직장의 일부

사진 김휘룡

해마다 일본 도꾜에서는 우리 나라의 모란봉합영회사가 주최가 되여 조직하는 상품전시회가 열리군한다. 전시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언제나 붐빈다.

전시된 우리 나라의 기성복이며 부인복, 잠바들은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몇해전 일본의 《아사히신붕》은 일본에서 우리 나라로부터의 양복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 피복제품수입량에서 제2위의 자리를 차지하고있는데 앞으로 그 수입량이 더욱더 늘어날것이 예견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신문은 우리 나라에서 만든 기성복의 질이 높아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고있는데 대해서 쓰고 그로 하여 옷들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있다고 소개하였다.

모란봉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하무역련합총국과 일본에 있는 총련산하 모란봉주식회사와의 합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1988년 9월에 조직되였는데 총련산하 상공인 전진식이 리사장으로 되여있다.

회사에서는 기성복(신사복)과 부인복, 잠바를 위주로 하면서 여러가지 주문피복류를 생산하여 대외시장에 수출하고있다.

회사에서 만드는 기성복과 부인복, 잠바는 호수와 형태가 다양하여 그 품종이 무려 수백종에 달한다.

회사건물은 평양시 동대원구역 신리동에 자리잡고있는데 연건평이 11,000평방메터이다.

회사는 생산공정이 흐름식으로 되여있으며 그 설비들은 모두 현대화되여있다. 매 공정에는 전문화된 자동설비들이 설치되여 높은 가공속도와 질을 보장하고있다.

이 회사에서 만든 옷들은 그 질이 높다. 그것은 천의 수축가공을 하고 좋은 심지를 쓸뿐아니라 겉감과 심지를 접착시키기때문에 빨래를 해도 옷이 줄어들거나 옷모양이 헝클어지지 않기때문이다. 또한 옷에 주름이 잡히거나 우그러드는 일이 전혀 없고 미끈하다.

이 회사에서 맵시있고 누구에게나 꼭 맞는 여러가지 호수의 옷을 만들어내고있는데는 기술준비실에 있는 옷설계가들의 노력이 크다. 기술준비실에는 기술수준이 높은 옷설계가들이 많은데 이들은 새 형태의 옷들을 주문해온 치수와 도안에 따라 여러가지 호수로 몸에 꼭 맞게 설계하고있다.

또한 가공직장에서 일하는 재봉공들의 기술기능수준도 대단히 높다. 그들은 그 어떤 복잡한 설계의 옷이라도 기술적요구에 맞게 재치있게 만들어내고있다.

회사는 모든 경영활동을 전자계산기화하고있다.

이 회사는 경영활동을 잘하여 나라의 대외무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한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기쁨을 드리였다. 주석께서는 몸소 합영회사 리사장을 접견하시고 회사를 잘 운영하도록 고무해주시였다.

이 회사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주석의 뜻을 받들고 수출품의 질을 높이고 그 생산량을 늘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리운봉

토 막 소 식

새형의 궤도전차와 지하전동차

우리 나라의 김종태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에서는 짧은 기간에 새형의 궤도전차와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의 크나큰 관심과 기대 속에 새로 만든 궤도전차와 지하전동차의 시운전이 진행되였다.

시운전결과에 의하면 모든 조작기구와 부분품들이 기술적요구에 맞게 원만히 동작하였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낸 궤도전차는 운전조작이 자동화되여있고 대차에 탄성요소를 많이 넣어 레루로부터의 충격을 적게 하였으며 높은 속도와 낮은 속도로 움직일 때와 비상시에 쓸수 있는 세가지 제동체계를 갖추고있어 운전에 아주 안전하다. 그리고 창문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통풍이 잘 되도록 설계제작하였으며 견인전동기도 능력이 높게 새롭게 제작하여 련결차를 달고 운영하는데도 지장이 없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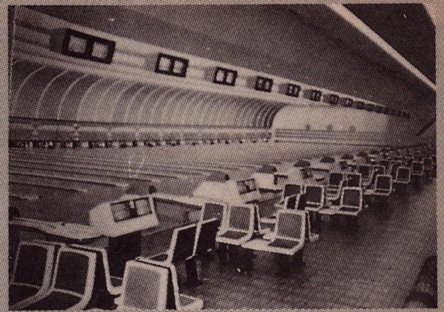
지하전동차 역시 운전조작이 자동화되여있고 대차에 공기용수를 받아들여 레루로부터 오는 충격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새형의 압축기를 개발하여씀으로써 제동체계가 원만하다.

새로 만들어낸 궤도전차와 지하전동차들은 수도의 려객수송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평양보링그관

평양보링그관이 새로 개관되였다.

풍치 아름다운 대동강반에 자리잡고있는 평양보링그관은 1만 4,300평방메터의 건평에 최신형 콤퓨터에 의하여 조종운영되는 40틀의 보링그설비와 여러가지 오락시설, 한증목욕탕



과 식당, 상점 등 봉사시설을 갖추고 국제경기도 할수 있게 잘 꾸려졌다.

평양보링그관이 이렇듯 새로 일떠서게 된데는 일본에 있는 총련상공인들의 높은 애국지성이 깃들어있다.

지금 평양보링그관으로는 우리 인민들은 물론 외국의 벗들과 해외동포들이 즐겨 찾아오고있다.

―방문기―

사회주의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예가 바로 그옛날의 지경이였던가

우리는 얼마전에 한해농사차비로 들끓는 강원도 안변군 봉산협동농장을 찾았다.

농장 관리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농장마을 입구에 들어선 우리는 아름답게 펼쳐진 마을전경에 마음이 끌려 발걸음을 멈추었다.

오붓하게 자리잡은 농장마을이며 감나무숲 우거진 넓은 도로의 량옆에는 병원과 탁아소, 학교와 유치원, 문화회관과 목욕탕 등 편의시설들이 조화롭게 자리잡고있었다.

우리를 안내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날 이고장은 불모의 땅으로서 나무 한그루 제대로 자라지 못하였지요. 게다가 일제와 지주놈들의 착취와 압박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사람들은 한결같이 죽을 지경이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이 지경으로 되였던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농장마을을 돌아보았다. 양지바른 산기슭에는 높고 낮은 농촌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일떠섰다.

그대로가 도시의 어느 한 구획을 돌아보는듯싶었다. 우리는 리인민병원옆에 자리잡은 한 살림집에 들리였다.

살림집은 넓은 부엌과 세면장, 창고 등이 구색에 맞게 꾸려져있었다.

뜰안에는 감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과일나무들이 푸르싱싱 자라고 있었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살림집마다에 가스화가 실현된것이였다.

그뿐이 아니다. 산기슭에 있는 남새온실에서는 배추와 쑥갓을 비롯한 남새를 많이 생산해내고있어 겨울철에도 농장원들에게 신선한 남새를 공급한다고 하였다.

농장마을을 보고난 우리는 마을앞에 펼쳐진 농장벌에 나섰다.

400정보의 논밭이 하나와 같이 자를 대고 금을 그어놓은듯 규격포전으로 정리되여있었다.

포전들에는 이미 완성된 수리화체계에 의하여 생명수가 철철 흘러넘치고있었다.

더우기 우리의 관심을 끈것은 포전들에서 동음을 울리며 분주히 오가고있는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들의 영농작업모습이였다.

우리는 기계화작업반, 축산작업반을 돌아본데 이어 년간 400톤능력의 소석회생산설비와 20만매능력의 기와생산설비도 돌아보았다.

참으로 농장은 모든 면에서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꾸려져있었다.

저녁무렵에 우리는 문화회관을 찾았다.

문화회관에서는 때마침 작업반별 예술소품경연이 한창이였다.

경연에 출연한 농장원들속에는 새납과 가야금 연주명수들도 있었고 조선민요를 재치있게 부르는 명창들도 있었다.

우리를 안내한 일군은 이곳 농장원들은 도적으로 알곡생산에서뿐아니라 예술소조활동에서도 소문이 났다고 하였다.

우리는 문화회관을 나오다가 회관의 한 담벽에 눈길을 돌렸다. 거기에는 농장이 발전하여온 로정이 새겨져있었다.

참으로 봉산땅의 전변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수행에서 이룩한 풍만한 열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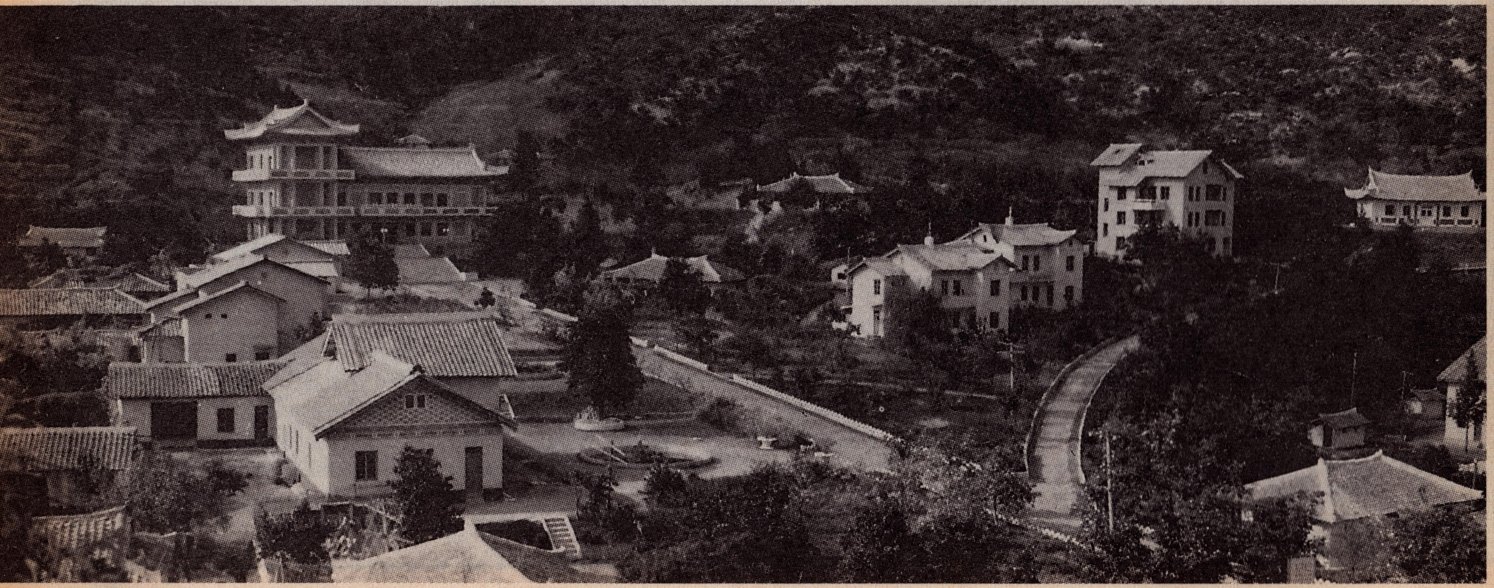
안변군에 고향을 둔 한 해외동포는 이고장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예가 바로 그옛날의 지경이였던가?! 정말 천지개벽되였다. 나도 한번 이런곳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으며 살아보았으면 원이 없겠다.

봉산협동농장은 그대로가 하나의 아름다운 휴양소이다.》

본사기자 윤대중

문화농촌으로 전변된 봉산마을



기행―동해기슭을 따라

단천지구

김책시에 대한 취재를 끝낸 우리는 단천지구를 소개하기 위해 렬차에 올랐다.

동해기슭에까지 뻗어내린 검덕산줄기의 협곡을 따라 한동안 달리던 렬차가 금골역에 도착한것은 중낮이 기운무렵이였다.

렬차에서 내린 우리는 검덕골안의 전경에서 눈길을 뗄수 없었다.

골짜기의 중턱에 닿게 허공으로 대형콘베아가 뻗어간 독특한 모습이 눈길을 끄는가 하면 골안을 메우며 층층이 들어앉은 다층살림집이며 문화회관, 공공건물들이 류다른 인상을 주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이 험준한 골안에 도시를 방불케 하는 이런 마을이 들어앉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나요. 그래서 이고장에 오는 사람들은 여간 희한해하지 않는답니다.》

렬차에서 우리와 구면이 된 허로인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하는 말이였다.

우리 나라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 검덕광업종합기업소는 지금 쇠돌생산으로 들끓고있었다.

월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혁신자들에게 보내는 축하방송이 온 골안에 메아리치는가 하면 갱입구에선 악대가 경쾌한 취주악을 울리고 학생소년들이며 마을녀인들이 갱에서 나오는 혁신자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성과를 축하해주었다.

그 광경들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던 허로인은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며 검덕의 지난날과 오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검덕광산은 처음에 은을 캐내는 광산으로 개발되였다.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 광산에서 은을 대량적으로 략탈하여갔으며 1930년대초부터 연, 아연을 캐내기 시작하였다.

그때 광산로동자들은 정으로 남포구멍을 뚫고 등짐으로 쇠돌을 나르는 중세기적로동을 강요당하였다.

로동자들이 땀을 쏟으며 쇠돌을 져나르던 갱마다에 오늘은 벨트콘베아가 들어가 쇠돌을 실어서 선광장으로 보낸다.

막장마다에는 대형굴착기며 착암대차들이 들어가서 광부들의 힘든 일을 덜어준다.

우리는 이 기업소의 종합지령실에 들리였다.

넓고 환한 지령실의 벽면은 광산의 여러 생산 계통과 공정을 표시한 선과 점, 계기와 신호등으로 장식되여있었다.

또한 현작업실태와 기계들의 가동을 볼수 있게 여러대의 텔레비죤이 놓여있었다.

지령장과 지령원의 앞탁에는 마이크며 스위치, 무선전화기가 놓여있는데 이 모든것은 대뜸 우리에게 이 종합지령실이 현대화된 광산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우리와 인사를 나눈 30대를 전후한 젊은 지령장은 지금 제3선광장에 지령중이라고 하면서 갱과 광구마다 광물생산이 부쩍 늘어나 선광이 딸려 점검중에 있는 선광기도 돌려야 할 형편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텔레비죤화면을 통하여 대형벨트콘베아며 선광장의 모든 공정이 흐름식으로 자동화되였으며 광산설비들이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되고 다량락광, 다량처리되여 쇠돌생산이 계속 늘어나고있는것을 한눈에 볼수 있었다.

우리는 이곳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들 대부분이 검덕공업대학을 나온 기사들이라는데 대하여 알게 되였다.

해방전에는 소학교 하나 변변한것이 없던 검덕에 오늘은 검덕공업대학과 공산대학분교 그리고 고등광업학교가 있다.

여기에서 양성되는 채광, 기계, 선광 기술일군들과 경영관리일군들이 광산의 관리운영에서 중추적역할을 놀고있다.

검덕광산마을에서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광산문화회관이였다.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덩실하니 솟은 문화회관의 외형건축미도 그 형식이 독특하였지만 그안에서 울리는 음악선률이 또한 우아하고 부드러웠다.

예술작품을 지도하고있던 문화회관 관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문화회관에서는 예술소조, 미술소조, 문학소조를 비롯한 여러 소조들이 활발히 움직이고있습니다.

예술소조에서 선발된 소조원들이 전국로동자들의 노래경연에 참가하여 절찬을 받고있으며 미술소조에서 창작된 미술작품들이 전국미술작품전시회에 출품되고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소조에서 창작된 시와 소설들이 출판되여 애독되고있지요.》

그러면서 그는 오늘 우리 로동계급속에서 창조되고있는 문화가 도시로 흘러간다고 하였다.

참으로 뜻이 깊은 말이다.

어제날에 현대문명과 담을 쌓고 살던 사람들이 오늘은 문화의 창조자로, 그 향유자로 되였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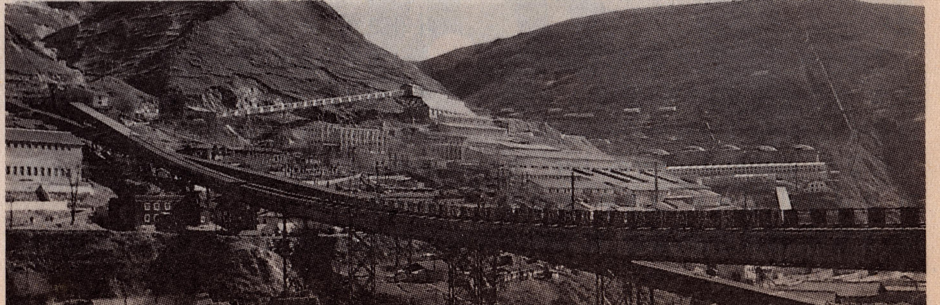
우리는 백금산으로 불리우는 룡양광산에로 취재길을 이어갔다.

흰 먼지기둥을 하늘높이 날리면서 발파소리가 골짜기를 들었다놓으면 대형굴착기가 큰바가지로 광석무지를 걷어올려 집채같은 자동차에 연방 담아주는 광경은 참으로 볼만하였다.

이 광산에서 캐낸 마그네사이트는 그대로 공장에 운반되여 국외에까지 수출된다.

단천지구는 광석의 채굴로부터 선광, 소성, 제련에 이르기까지 쇠돌을 종합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기지로서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고장이다.

검덕광업종합기업소의 일부



—수기—

앉은뱅이가 축구선수로

앉은뱅이소년

사람이 한생을 살아가느라면 때론 웃지 못할 희극적인 일에 부딪치는 경우도 있는가싶다.

얼마전 나에게로 한 일본사람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않았던 한장의 편지가 날아왔다. 그런데 집주소로 보내온 편지의 서두에는 이렇게 씌여져있었다.

《친구여, 지금 어떻게 지내고있는지? 걸어보는것을 최대의 희망으로 간주하던 자네에게 아직도 기적이 찾아왔을리는 만무할거네. 어릴적 자네의 불우한 모습을 가슴에서 지워버리지 못한 나는 중년기에 접어든 오늘에 와서도 자네의 정상이 애달프게만 생각되네.

치명적인 불구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자네에게 나는 동요시절의 우정을 안고 깊은 동정심을 표시하는바이네…》

(누구일가?)

나는 발신인의 주소를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기억을 더듬었다. 한참만에야 옛적의 한 일본소년의 얼굴을 찾아냈다. 한마을에서 살면서 종종 우리 집으로 와서 나를 동무해주군하던 그 니시하라가 분명했다.

그가 불우한 처지에 빠져있던 나를 잊지 못해하며 동정심이 담겨진 편지를 보내오다니…

추억은 살같이 세월의 장벽을 뚫고 30여년전의 먼 과거로 날아갔다.

당시 일본땅의 효고현 니시노미야마을에서는 한 앉은뱅이 조선소년이 수심에 잠긴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7살때에 원인모를 척추골결핵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는 아예 앉은뱅이가 되고말았던것이다.

세상이 좁다하게 뛰여다니며 놀던 소년에게 있어서 그것은 치명적인 운명의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소년은 절망에 잠겨 몸부림쳤으며 그의 부모들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소년의 부모들은 아들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그를 업고 동서남북 안가본데가 없었다. 그 과정에 많은 돈을 들여 두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소년은 일어서지 못했다.

(하늘도 무심하구나! 무슨 죄가 있기에 하필 우리 아들에게만 이런 불행을 들씌운단 말인가.)

기진맥진한 소년의 부모들은 더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째지게 가난한 살림속에서 아들의 치료비를 당해낼수 없었고 설사 병원을 찾아다니며 돈을 물쓰듯한다 해도 아들의 병이 나아지리라고는 장담하기 어려웠다.

바로 이러한 때 조국에서는 일본땅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에게 귀국의 배길을 열어주었다. 그리하여 소년이 9살 되던 해 어느날 그의 부모들은 마주 앉아 최후의 방도를 선택하였다.

《여보! 우리도 사회주의조국의 품으로 가기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소. 조국에 가면 보람있게 살수 있고 둘째의 병도 고칠수 있지 않겠소.》

《그러자요. 조국에 가서 마음 편히 살면서 다시 시작해보자요.》

옆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대화를 듣던 소년은 더욱 설움이 북받쳐올라 엉엉 소리내여 울었다.

《아버지! 엄마! 나를 일으켜세워줘요. 난 걷고싶어요! 걷고싶어!》

《애야!》

소년의 부모들은 아들을 와락 그러안으며 큰 울음을 터치였다.

아직은 생이 영원한것으로만 여겨지던 그 시절, 남들처럼 대지를 쾅쾅 구르며 걸어보는것을 최대의 희망으로 간주하던 그 소년은 대체 누구였는가.

바로 나였다.

외국기자와의 회견

벌써 15년전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때 아세아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제20차아세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가 치렬하게 진행되였다.

경기에 참가한 나는 11번을 달고 우리 나라 청소년팀의 공격수로 활약하였다.

마감경기를 치르고났을 때 한 외국기자가 나에게 단독회견을 요구해왔다. 그래서 나는 그 외국기자와 마주 앉았다.

그날에 진행된 회견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이번 경기대회기간에 꼴을 7알씩이나 넣은 당신을 축하한다. 관중들이 당신을 가리켜 《경기장의 번개》 또는 《축구표범》이라고 평가한 사실을 알고있는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고 생각된다. 나는 우리 동무들이 좋은 기회를 조성해주었기때문에 여러 알의 꼴을 넣었을뿐이다.

—어쨌든 당신의 속도와 민첩성은 매혹적이다. 국제경기에는 모두 몇번이나 참가하였는가.

—이번 경기대회까지 약 50번정도 된다.

— 넣은 꼴은 대체 몇알이나 되는가.

— 이번에 넣은것까지 합치면 31알이다.

—몇살때부터 국제경기에 참가하기 시작하였는가.

—18살때부터이다.

—그러니까 10살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축구를 배웠겠다고 짐작되는데 내 추측이 맞는가.

—아니 맞지 않는다. 나는 14살에 잡혀들어서야 비로소 축구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무슨 조건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였는가.

—나는 12살까지 앉은뱅이소년이였다.

—그게 무슨 소린가. 당신의 롱담은 너무 지나치다. 이 회견이 국제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

—롱담이 아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정 믿지 못하겠다면 증인들을 얼마든지 불러올수 있다.

—그런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었으면 한다.

—나는 일본에서 태여난 조선사람이다. 7살적에 심한 척추골결핵으로 앉은뱅이가 되고말았다. 나의 부모님들은 가난속에서도 나를 회복시켜보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사람의 인격적가치가 돈에 의해 롱락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아들의 병을 고쳐줄래야 고쳐줄수가 없었다. 이러한 때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의 배길이 열리였다.

부모님들은 환성을 올리였다. 조국에 가면 삶을 새롭게 시작할수 있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는곳에서 아들의 병도 고쳐줄수 있다고 여겼기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9살때 부모님들을 따라 삶의 보금자리를 조국으로 옮기였다. 그때가 아마 1960년 봄이라고 생각된다.

—부모님들의 타산은 적중하였는가.

—물론이다. 조국에서 나는 돈한푼 들이지 않고 여러가지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았다. 나 한사람에게 돌려진 국가의 배려와 의사, 간호원들의 정성을 문학적으로 엮어놓는다면 그것은 아마 가장 출중한 인간사랑의 서사시로 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무심히 들을수 없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축구선수로는 어떻게 발전할수 있었는가.

—병을 털고 일어나자 나는 날마다 온몸에서 힘이 무섭게 용솟음치는것을 느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때부터 체육구락부에 다니며 뽈을 차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한 축구애호소년의 재능의 싹을 귀중히 여기고 인차 축구선수단으로 소환시켜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게 해주었다. 그덕에 나는 국제경기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 축구선수로까지 자라날수 있었다.

—당신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걸어보고싶어하던 소원의 10배, 100배의 희망을 성취하였으니 말이다.

—옳은 평가이다.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운 품이 없다면 오늘의 행복과 영광을 꿈에서도 얻지 못할것이다.

—나는 앉은뱅이가 한다하는 축구선수로 된 이야기는 난생 처음 들어본다.

—우리 조국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나라이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 내가 바로 그 혜택의 산아이다.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오늘 매우 귀중한것을 알게 되였다. 그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제도에서만이 인간에게 참다운 희망의 대문을 열어줄수 있다는것이다. 좋은 이야기를 들려준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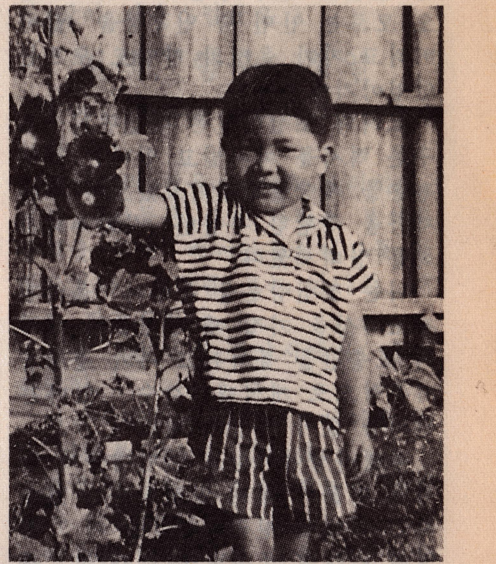
나는 이 회견내용을 그 일본사람이 보내준 편지의 대답으로 만들고싶다. 동정심이 가득 담겨진 그 편지는 비록 고맙기는하나 한편 나에게는 어이없는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비웃고싶지는 않다. 인간중심의 독특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와는 너무나 상반되는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아닌가.

이 글을 마치면서 나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제도에서만이 인간에게 참다운 희망의 대문을 열어줄수 있다》고 한 그 외국기자의 말을 다시금 가슴에 깊이 되새겨보게 된다.

압록강체육선수단

축구지도원 강명근





훈련지도를 하고있는 강명근(왼쪽 두번째) 과 그의 어린시절

주체사상의 발전풍부화

《뻬루에는 〈력사에 살지 않는 사람은 시작도 끝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격언은 력사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 새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있다.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력사와 전통을 영영 잊어버렸거나 또 전통의 일부만을 고수하고있다. 이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왜냐하면 력사를 모르는 인민은 자기 생활의 시작도 끝도 모르는 인민 즉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운명의 향방도 모르는 인민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이어받고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월한 사회주의사회를 일떠세웠다.

나는 조선방문을 통하여 옳바른 지도사상을 가질 때 인민들이 력사의 조종간을 틀어쥐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였다.

주체사상이야말로 인민대중이 력사와 더불어 살며 발전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진리라는것을 더 잘 알게 된것이 조선방문의 가장 큰 소득이였다.》

이것은 뻬루의 호쎄 나르바에스쏘또가 쓴 글 《위대한 진리》의 한 부분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문무충효를 겸비한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시면서 사상리론분야에서도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여 커다란 업적을 쌓으시였다.

혁명의 지도자에게 지워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혁명의 지도사상을 발전시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옳바른 지도사상을 등대로 해서만 력사의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비상한 탐구력과 정력을 지니시고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여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여나가고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혁명의 요구와 새로운 자주시대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하여 일찌기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진수를 이루는 내용들을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우리 당의 지도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였다.

그리고 현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원리와 내용들로 주체사상을 더욱 풍부화하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켜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시대적요구로부터 1982년에 주체사상의 모든 원리와 원칙들이 전일적으로 집대성되고 체계화된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였으며 칼 맑스 탄생 165돐 및 서거 100돐에 즈음하여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에서 수령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대하여서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우리의 혁명위업과 그를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독창적인 리론과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이 밝혀져있는 문헌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를 발표하시였다.

그리고 1986년에는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진리성이 심오히 해명되고 그 원리들이 발전풍부화되였을뿐아니라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원칙적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였다.

이 문헌들은 그이의 사상리론활동의 일면을 보여주는 단적실례의 하나에 불과한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많은 문헌들을 발표하시는 한편 우리 인민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과 주체사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보급선전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여 주체사상이 명실공히 인민대중자신의 혁명사상으로 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사상은 세계적판도에서 널리 연구보급되고있다.

베네수엘라 술리아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학들에서는 주체사상강좌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주체사상교육을 진행하고있으며 세계 5대륙의 200여개 종합대학들에서는 주체사상해설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일본, 인도, 짐바브웨, 시에라레온, 나이제리아, 뽀르뚜갈, 르완다, 가이아나, 뻬루에서 20여개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새로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우리 인민의 토양에 씨를 뿌리고 키워온 주체사상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성한 숲으로 가꾸시여 풍만한 열매를 거둘수 있게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집필하시는 중요문헌들이 련이어 발표되고있는데 그것만 보아도 그이께서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고 그것으로 인민들을 무장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정력적으로 노력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최근년간에만도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라는 문헌이 발표되였는데 이 문헌들은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근본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진정한 사회주의의 진로와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을 명시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문헌들이다.

특히 지난해에 그이께서 발표하신 문헌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은 우리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훌륭한 량식으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을 고무하고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적기치로 되고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당들이 사회주의위업의 진리성과 정당성, 그 종국적승리의 필연성을 확인한데 기초하여 채택한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에 서명한 당들이 1992년 4월 선언이 채택될 때 70개 정당으로부터 올해 2월 현재 207개 정당에 이른 사실은 그 생활력을 잘 보여주고있다.

세계 저명한 인사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상리론활동분야에서 쌓아올리신 업적에 대하여 칭송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네팔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활동과 탁월한 령도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 앞에 세기에 빛날 력사적공헌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근본원인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고 진정한 사회주의진로와 혁명적당건설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참으로 **김정일**동지는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을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본사기자 리갑송

보석화와 최선희

만수대창작사 조선보석화창작단의 최선희는 전도유망한 창작가로 뭇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보석화 《장군별》, 《노래 부르는 처녀》, 《조국의 바다》, 《강아지와 꽃병》, 《통일꽃대문놀이》를 비롯하여 우수한 보석화작품들을 창작하였다.

부드럽고 아름다우면서도 동심적이며 녀성특유의 정서가 풍만하게 안겨오는 그의 작품들은 조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해외동포들의 기념품으로 손꼽히고있다.

《조국의 바다》

얼마전 《금수강산》잡지 편집부로 한 해외동포가 편지를 보내여왔다.

《저는 지난해에 조국을 방문하여 만수대창작사를 참관했었는데 그때 보석화 〈조국의 바다〉를 기념품으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 집 응접실 제일 밝은 벽면에 걸어놓고 매일 보는 〈조국의 바다〉, 우리의 희망처럼 맑고 푸른 조국의 바다를 보면서 멀리 이역땅에서도 언제나 조국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작품을 창작한 그 녀성화가를 한번 소개해주었으면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편지를 받아보고 후날 최선희를 만난것은 그의 창작실에서였다.

새 작품창작에 여념이 없는 그의 손은 마치도 마술사의 손을 련상시켰다. 보통키에 동그스름한 얼굴, 그윽해 보이기도 하고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는 그의 다정한 눈빛, 일괄하여 그는 재능있는 녀성창작가라는 직분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도 소박하고 겸손한 녀인이였다.

《…조국인민들은 물론 해외에 살고있는 동포들까지도 저의 보석화작품에 애착을 가지고있다니 창작가로서 기쁜 마음 금할수 없군요. …》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여름에 있은 일이였다.

최선희는 휴가로 동해기슭 원산에 있는 송도원휴양소에 갔었다.

그때 조국을 방문한 수많은 동포들이 금강산에 갔다가 이곳 송도원휴양소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었다.

중국과 일본, 구라파, 미주에서 온 동포들은 저저마다 해수욕을 하고 등산도 하며 조국의 정서에 심취되여 시간가는줄을 모르고있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조국을 방문했다는 7살쯤 되여보이는 소녀애의 모습은 그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겨놓았다.

시원한 바다가에 발을 잠그고 좀처럼 떠날줄 모르는 소녀! 조국의 바다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의 머리속에는 창작적령감이 번뜩이였다.

조국을 그리는 그네들의 마음을 화폭에 담으리라.

《…보석화 〈조국의 바다〉는 이렇게 되여 창작되게 되였습니다. 저는 그저 이 작품에서 조국을 그리는 동포들의 심정을 다소나마 담고싶었어요. 그러나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 죄송스럽군요.》

사색, 탐구, 정열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최선희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보석화창작을 위해 태여난듯싶다고들 말하고있다. 그만큼 그는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있다.

그는 1962년에 평양시에서 출생하였다.

어린시절부터 그는 《꼬마미술가》로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

조국은 그의 이러한 재능을 곱게 안아 키워주었다.

배움의 넓은 길은 그를 평양미술대학으로 떠밀어주었다. 대학의 교정은 그에게 창작의 나래를 펼쳐준 비옥한 토양이였고 밑거름이 되였다.

대학의 교원들과 미술선배들은 처녀의 꿈을 귀중히 여겨 사심없는

교육과 지도, 방조를 주었다.

1985년에 평양미술대학 회화학부를 졸업한 그는 만수대창작사 출판화창작단에서 미술가로서의 첫 발자국을 떼였다.

그후 1989년부터 조선보석화창작단에서 창작생활을 시작하였다. 《봄비》는 그의 처녀작이다. 최선희는 불변색의 천연보석가루를 리용하여 독특한 회화적형상을 창조해내는 회화미술의 한 종류로서의 조선보석화의 특징을 잘 살려내기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였다.

녀성미술가로서의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감정, 어머니로서 동심에 비낀 아름다운 정서와 특기를 돋구기 위하여 그는 부단히 사색하고 탐구하였다.

개나리꽃, 진달래꽃이 활짝 핀 봄날 대성산에 들놀이 하러온 어린이들을 보면 조국의 아름다운 산천과 거기에 비낀 꽃봉오리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석화에 옮겨놓고싶은 충동을 느꼈으며 하나의 춤가락, 하나의 노래선률도 무심히 대하지 않았다.

그의 머리속은 언제나 창작적령감으로 꽉 차있다.

길을 걷다가도 새로운 착상이 떠올라 종이를 펼치고 그림을 그리기가 일쑤이고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연필을 들고 착상을 무르익히기도 한다.

그가 얼마나 창작에 전심하였으면 부엌에서 밥이 타는것도 몰랐으며 남들보다 뒤늦게 퇴근하여 탁아소에 가기때문에 《엄마 또 꼴찌》하고 울음보를 터뜨리는 딸 미예를 달랠 때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피아노 치는 소녀》, 《첫눈》, 《달맞이》, 《장미》를 비롯하여 1989년 11월부터 오늘까지 그는 170여점의 보석화를 내놓았는데 그 제목들이 말해주는것처럼 그의 작품령역은 넓다.

《노래 부르는 처녀》와 《수놓는 소녀》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아온듯 정서가 넘치고 생큼하게 형상한것들이 있는가 하면 《강강수월래》, 《오작교에서》, 《목동과 처녀》, 《그네뛰기》처럼 민속적인 풍습들을 진실하게 살려내여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겨놓는 작품들도 있다.

그가 창작한 보석화작품들은 색갈이 아름답고 우아하며 고상하면서도 은근하고 재미있는것이 특징이다.

그에게는 몇송이의 꽃과 강아지를 가지고도 자연의 풍치를 돋구는 재기가 있다.

《꽃향기》, 《봄비》, 《강아지와 소년》은 형상이 생동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놓으며 온갖 꽃 만발한 봄의 그윽한 향기가 예까지 풍기는것만 같다.

귀여운 강아지가 꼬리치며 소년을 반기는 모습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산 현실의 한 단면처럼 보인다.

공훈예술가 신봉화단장은 이렇게 말했다.

《부단히 사색하고 탐구하며 근면하고 꾸준한 그는 언제나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자기의 특기를 살린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합니다.

그는 실장으로서 신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에도 많은 시간을 바치고있습니다.》

단장의 말에 의하면 색갈이 아름답고 선명하며 표현이 생동하고 능란한 그의 보석화작품들은 가까이 다가가 보면 볼수록 진귀하게 안겨오고 멀어질수록 하나의 예술적화폭으로 안겨와 오래동안 볼맛이 있으므로 우리 인민들뿐만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파키스탄, 일본, 독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전람회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된 미술전람회에 출품된 《말레이시아 소녀와 원숭이》, 《말레이시아 녀가수》, 독일에서 진행된 전람회에 출품된 《개나리》, 《꽃을 안고》, 《단풍》, 《첫눈》,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전람회에 출품된 《봄비》, 《들꽃단장》 등 여러 보석화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선희는 우리와 헤여지면서 앞으로 해외동포들의 기념품으로 될수 있는 더 훌륭한 보석화작품들을 창작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본사기자 김경희

지명의 유래

대 동 강

평양을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은 랑림산 남쪽기슭의 바위굴속에서 시작하여 서해갑문을 거쳐 바다로 흘러드는 우리 나라 5대 강의 하나이다.

우리 선조들은 대동강을 《패수》, 《패강》, 《왕성강》이라고 불러왔다.

이 이름들을 따져놓고 보면 그 어느것이나 다 예로부터 번성했던 평양을 감돌아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 어려있다.

《패수》, 《패강》이라는 이름에서 《패》자는 평양의 옛이름인 《바라나》, 《부루나》의 《바라》, 《부루》 자를 리두식표기를 쓰면서 한자로 옮겨 쓴것이다.

그리고 《강》, 《수》 자들은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한자표기이다.

《왕성강》이라는 이름도 임금이 있는 성 즉 나라의 수도의 강이라는 뜻으로부터 지어진것이다.

그러던 강이름이 11세기를 전후로 대동강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하였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후세 사람들은 대동강이라는 이름을 두고 제나름으로 뜻풀이를 하였다.

옛문인들은 한자의 뜻을 보고 많은 강들이 합쳐 흐르는 큰 강이여서 그렇게 불렀으리라는 생각으로부터 《동국여지승람》과 《대동수경》이라는 책에도 《많은 강들이 모여 흐르기때문에 대동강이라 이름하였다》라고 기록해놓았다.

그러나 《대동》이라는 리두표기를 옛날 우리 말로 따져보면 《한드루》라는 뜻이 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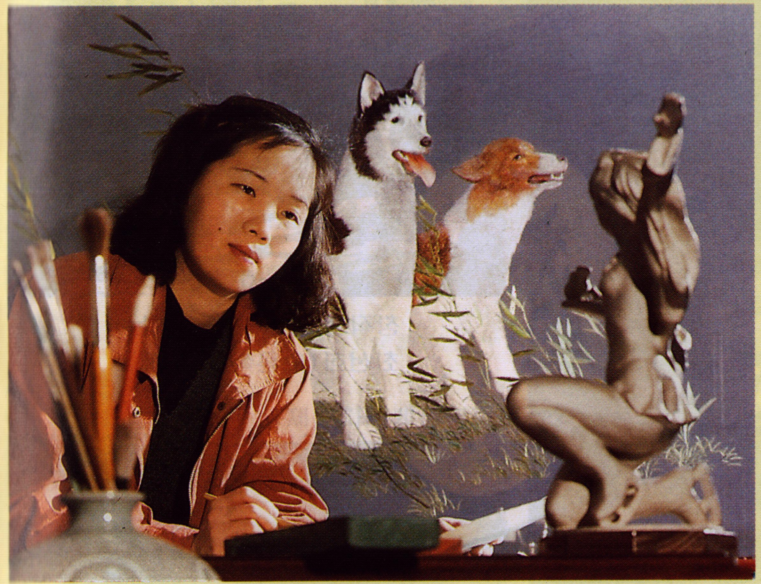
여기에서 《한》이라는 글자는 크다는 뜻으로 아직도 《한가득》, 《한걱정》 등 우리가 일상시 쓰는 말에 많이 포함되여있다.

또한 《드루》라는 말은 《부루》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서 도시나 수도를 의미하며 또 넓은 벌을 가리켜 쓰던 말이다. 《드루》라는 말은 오늘 《들》로 변화되여 《들판》, 《넓은 들》이라는 말을 쓸 때 많이 쓰이고있다.

그러니 대동강의 대동이란 말도 많은 강이 합쳐서 흐르는 큰 강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랜 력사를 가진 수도 평양의 강이라는 뜻에서 생긴것이다.

이처럼 대동강을 가리키는 이름들은 그 어느것이나 《수도의 강》이라는 뜻을 간직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창작중의 최선희



보석화 《조국의 바다》

보석화 《룡일꽃대문놀이》





보석화 《수놓는 소녀》



창작토론을 하고있는 최선희(오른쪽 두번째)



동심에 끌리여

보석화 《단심줄놀이》



사진 박강철

명승의 나라

릉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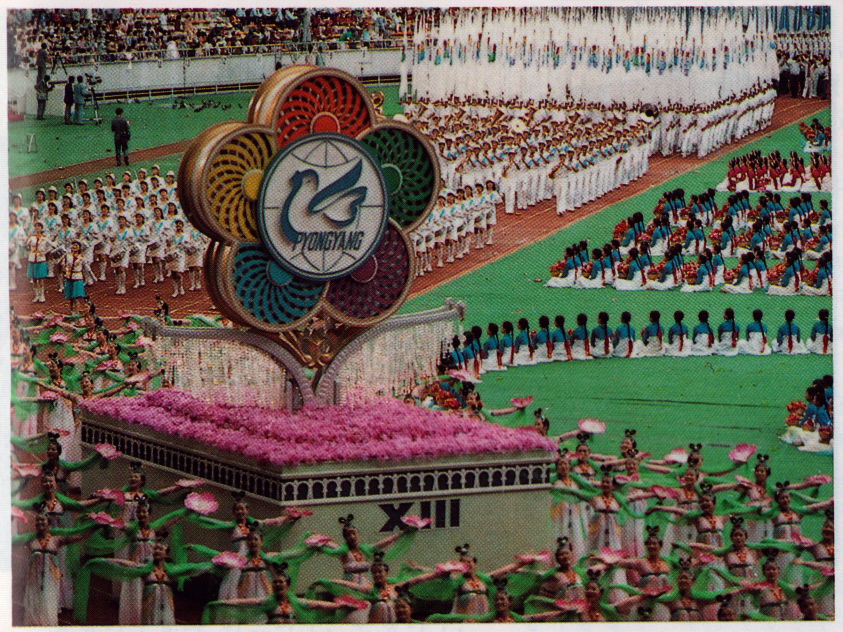


5월1일경기장



북남통일축구경기입장식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의 일부





모란봉에서 바라본 릉라도의 일부



취미에 따라 여러가지 체육을 할수 있는 시설들도 갖추어져있다

누가 명중할것인가?…





유원지를 정성껏 가꾸고있다



사진 박지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며



평양시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대동강에 릉라도란 섬이 있다.

대동강의 푸른 물에 꽃바구니마냥 두둥실 떠있는 섬, 그 경치가 마치 강물을 다듬어 릉라비단을 펼친것 같이 아름다와 예로부터 평양사람들은 이곳을 릉라도라고 불러왔다.

릉라도는 대동강의 쌓임작용에 의하여 주로 모래, 자갈로 이루어져있는데 그 길이는 2.7키로메터이고 둘레는 6키로메터, 평균 해발높이는 10메터 안팎이다.

릉라도는 주변의 경치와 어울려 절승을 이룬다. 아름다운 모란봉기슭을 따라 청류벽이 병풍을 치듯 서있고 맑은 대동강물이 해빛에 반사되여 구슬같이 반짝인다.

여기저기에 화단들이 배치되여 봄부터 가을까지 갖가지 꽃들이 피여있다.

사계절이 다 좋지만 온갖 꽃들이 다투어 피여나는 릉라도의 봄경치는 그림처럼 아름답다. 봄이면 진달래, 무궁화, 장미, 해당화 등이 피여나고 살구, 단벗, 앵두 등 과일꽃들이 피여나 섬이 그대로 꽃속에 묻힌다. 그때의 경치는 물우에 뜬 꽃바구니처럼 보인다. 여름에는 섬의 곳곳에 잣나무, 소나무 등 바늘잎나무들과 버드나무, 은행나무, 꽃벗나무 등 넓은잎나무들이 숲을 이루어 그속을 거니는 기분은 상쾌하기 그지없다. 록음우거진 숲속에서는 꿩, 뻐꾸기, 꾀꼬리, 딱따구리, 밀화부리들이 수없이 찾아와 지저귄다. 실실이 늘어져 물결우에서 춤추는 수양버들가지들, 그사이로 오가며 사랑을 속삭이는 청춘남녀들의 모습은 릉라도의 풍치를 한결 돋구어준다. 대동강에서는 낚시군들이 잉어와 붕어를 비롯한 물고기를 낚아낸다.

릉라도에는 천연기념물인 릉라도산벗나무와 전나무, 릉라도수양버들이 있다.

1965년 4월 4일 릉라도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이곳에 8그루의 산벗나무와 7그루의 전나무를 심으시였다. 이 나무들이 자라나 평균높이가 7메터정도, 밑둥둘레가 90센치메터정도에 이르렀다. 이 산벗나무와 전나무가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여있다.

릉라도수양버들은 높이가 16메터정도, 밑둥둘레가 1.5메터정도로서 큰나무들중의 하나이다.

1989년 7월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을 맞으며 5월1일경기장이 건설됨으로써 인민의 유원지 릉라도의 모습은 일신되였다. 방금 내려앉은 락하산과도 같고 한떨기의 아름다운 함박꽃과도 같은 5월1일경기장이 자리잡자 릉라도는 새 풍치를 띠게 되였다. 이 경기장은 건축면적 20만 7천여평방메터, 수용능력 15만석으로서 규모에서나 건축양상에서 독특한 기념비적건축물이다. 축구외에도 수많은 국제경기를 할수 있고 행사장소로서도 손색이 없다. 모란봉밑을 뚫고 새로 낸 금릉동굴을 거쳐 릉라도로 뻗어내린 립체다리와 넓은 포장도로를 통해 경기장으로 가게 되여있으며 릉라다리 주차장과 기단차고에는 6,000여대의 자동차를 세울수 있다. 이 경기장에서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의 개막과 페막 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오늘 릉라도는 종합적인 체육문화휴식터로 더잘 꾸려지고있다.

릉라도는 야외체육휴식구, 민족체육오락휴식구, 백화원휴식구, 체육문화휴식구, 반월도야외수영장휴식구로 나뉘여져 꾸려지고있다. 릉라도의 맨 웃쪽에 있는 야외체육휴식구에는 야외축구훈련장, 로라속도 및 휘거장, 송구장, 야구장, 투구장, 활쏘기장이 있다. 릉라도의 중심부의 민족체육오락휴식구에는 씨름터와 그네터, 널뛰기터, 유희사격장이 그리고 백화원휴식구에는 각종 꽃나무와 열매나무, 사철 푸른 나무들이 심어지고 조선식정각과 동물사들이 꾸려져있다. 릉라다리와 백화원사이 체육문화휴식구에는 정구장, 배구장, 롱구장, 바드민톤경기장들과 목욕탕, 한증탕이 꾸려지고 릉라도 아래지역 반월도에는 야외수영장이 건설되였다. 휴식구들에는 식당과 청량음료점을 비롯한 봉사시설들도 갖추어지고 5월1일경기장 내부에도 20개의 체육 및 유희실들이 꾸려졌다. 섬 두리는 화강석을 잘 다듬어 쌓았고 륜환도로가 포장되고 쇠바줄다리가 건설되고있다.

그리하여 릉라도는 인민의 유원지, 종합적인 체육문화휴식터로 꾸려져 시내 근로자들의 건강과 휴식, 문화정서생활에 더잘 이바지하고있다.

릉라도에는 여러가지 전설들이 있다. 그 가운데는 이런 전설도 있다.

릉라도는 옛날 대동강의 상류인 평안남도 성천군안에 있었는데 어느때인지 큰 홍수에 흘러내려 오늘의 위치에 머물렀다고 한다. 성천에서는 없어진 릉라도를 찾던중 평양에서 발견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서는 릉라도를 성천에 옮겨갈수 없어 매해 조세만 받아갔다. 그것을 부담으로 느낀 백성들은 평양감사에게 릉라도를 평양땅으로 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릉라도에 욕심을 두고있던 평양감사는 성천부사에게 릉라도를 평양에 속하게 할것을 수차 제기했으나 거절당하였다. 평양감사는 성천부사에게 릉라도를 평양관내에 두지 말고 빨리 옮겨가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세우겠다고 위협하였다. 성천부사가 섬을 성천에 옮겨갈 재간이 없었으므로 부득불 평양에 속하게 되였다는것이다.

본사기자 로명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5)

《후방인민들의 전선원호》

부주제군상 《후방인민들의 전선원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방송연설을 높이 받들고 조국해방전쟁승리에 적극 이바지한 후방인민들의 투쟁모습을 감동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의 맨앞에는 탄약상자를 머리우에 이고 비발치는 적탄도 아랑곳없이 고지로 오르는 녀성이 형상되여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던 조국, 고향땅을 포연속에 잠기게 한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번뜩이는 눈동자, 끈으로 질끈 동인 허리, 힘있게 앞으로 내딛



는 발 등의 형상세부들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딸들을 전선으로 떠나보내고 후방을 지켜 싸운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녀성들의 미더운 모습을 전형화하고있다.

또한 작품에는 무거운 탄약상자를 손발구에 싣고 고개길로 오르는 소년과 탄약상자를 지게에 진 늙은이도 형상되여있다.

작품의 뒤부분에는 병기공장로동자와 인민군수송전사의 모습도 생동하게 형상되여있다.

이들의 모습은 조국해방전쟁시기 강원도의 온정령사람들과 남강마을녀성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들이 떨쳐나서 전선을 원호하고 자기의 공장과 마을을 지키면서 전시생산을 보장하였던 후방인민들의 투쟁을 되새기게 한다.

부주제군상 《후방인민들의 전선원호》는 길이 9메터, 너비 3.3메터, 높이 6메터이다.

군상 《후방인민들의 전선원호》는 전화의 그때처럼 오늘도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한길로 억세게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들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적후인민유격대원들의 투쟁》

부주제군상 《적후인민유격대원들의 투쟁》은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에 적후에서 유격대를 조직하고 용감한 투쟁을 벌려 적들의 배후를 교란시키고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준 적후인민유격대원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고있다.

군상의 앞부분에는 녀인이, 가운데에는 지휘관과 소년, 뒤에는 로인과 중년사나이가 형상되여있다.

솜덧저고리를 든든하게 입고 가죽혁띠까지 허리에 두른 녀인, 총을 들고 싸움길에 나선 녀성의 형상은



비록 육체적으로 연약한 녀성의 몸이지만 남성들 못지않게 적후에서 적들과 싸운 조선녀성들의 강의한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군상 가운데부분에 세워진 지휘관은 근엄한 얼굴표정을 짓고 앞으로만 걸어가는것으로 형상되여있다. 앞가슴우에는 쌍안경이 걸려있고 허리춤에는 작전가방이 드리워져있다.

지휘관의 옆에는 소년이 서있고 그 뒤에는 로인의 름름한 모습이 형상되여있다.

앞대오와 좀 떨어져서 로동자풍의 중년사나이가 따르고있다.

이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은혜로운 조국을 빼앗으려고 날뛰는 침략자들에게 천백배의 복수를 안길것을 굳게 맹세하고있다.

부주제군상 《적후인민유격대원들의 투쟁》은 길이 9메터, 너비 3.3메터, 높이 6메터이다.

부주제군상 《적후인민유격대원들의 투쟁》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승리의 신념을 가지고 일심단결하여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일성상》계관인 작가 최준경의 수기—

시대와 민족의 감정을 담아

나는 종종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가사에 대하여 깊은 감동을 느끼는 동포들의 반향을 받군한다.

얼마전에는 이국의 한 동포가 어떻게 되여 그런 가사를 쓰게 되였는가 하는 문의를 하여왔었다.

역시 시대의 정신과 민족의 감정을 반영한 작품은 인민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다는것을 나는 가사창작가로서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수 없다.

돌이켜보면 가사창작의 동기는 해외동포들과도 잇닿아있었다.

내가 오스트랄리아에서 온 한 동포를 만났을 때였다.

그는 비데오촬영기를 한쪽 어깨에 늘쌍 메고다니며 고국의 모습을 한 장면이라도 놓칠세라 쉴새없이 촬영하더니 나를 마주한 좌석에서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참, 어려서 고향을 떠났던 내가 인생말년에 와서 이땅을 다시 밟아보는데 고국의 경치가 특이한 정서를 자아내는구려. 아 글쎄 우리 대표단이 백두산에 올라 그곳에서 한창 점심식사를 하려고 둘러앉았을 때였지요. 내 손에 쥐여진 저가락우에 호랑나비가 살짝 와앉는게 아니겠소. 나는 날아날세라 꼼짝하지 않고있는데 그놈이 또 팔랑팔랑 날아가는게 아니겠소. 참 아쉽기도 하고, 백두산에 그런 나비가 있다는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보았지만 이번에 고국에 와서 찌르레기 울음소리도 처음 듣는구만요. 아마 뭇새들도 고국의 경치가 좋아 모여드는것 갈애요. …》

동포의 이야기는 극히 자연현상에 대한 소박한 감흥으로 그치는것 같았으나 나의 가슴속에서는 이름못할 뜨거운 감정이 은은한 정서를 타고 흘렀다.

이 세상 그 어데서나 여름한철이면 흔히 볼수 있는 자연의 경치, 하지만 그 동포에게 있어서 고국에서 보게 되는 한포기의 풀, 한그루의 나무, 한마리의 새, 미세한 곤충까지도 무한한 사랑과 환희를 불러주는 소중한것이였으며 특이한 정서를 가져다주는것이였으리.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조국애는 산과 들에 피여나는 꽃, 어린시절의 추억을 못견디게 불러일으키는 고향마을의 옹달샘, 푸른 언덕, 집 앞뜰에 맴돌던 빨간잠자리, 내가의 버들, 아리랑곡조와 갈



은 구체적인것으로부터 출발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고국을 찾은 기회에 잊을세라 고향땅의 흙을 한줌씩 싸넣는 동포들, 금강산의 흰 자갈을 기념품이라며 트렁크에 넣어가는 동포들.

고국의 정서를 한가슴에 안고가고싶어하는 동포들의 모습은 참으로 뜨거워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지난날 나라없는 탓에 피눈물 흘리며 남부녀대하고 현해탄을 건너, 태평양을 넘어 낯설고 물설은 이국땅으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으면 안되였던 해외동포들.

그들은 몸은 비록 남의 나라 땅에 두고있어도 선조들의 백골이 묻혀있고 제가 나서자란 고향, 조국의 한떨기의 꽃, 한모금의 물, 아리랑곡조를 한시도 잊은적이 없어 그를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한채 그리움에 몸부림치는것이다.

태여난 나라, 혈육들이 사는 조국은 진정 해외에서 사는 동포들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겨레의 땅, 선조의 땅인것이다.

해외동포들이 그토록 한생을 걸쳐 절절하게 체험하는 이러한 세계를 나는 외국려행이라는 짧은 기간만으로도 뼈저리게 절감하였던것이다.

초원과 사막, 동토대와 쟝글, 열풍과 빙설, 공해와 안개로 뒤덮이고 백야가 엇바뀌는 등 나라마다 기후풍토가 천태만상이였다.

또한 사회제도의 내부를 투시해보면 돈과 권력으로 약육강식이 지배되고 민족적자주권을 잃은 나라, 실업대군과 거지들이 홍수처럼 불어나는 나라, 살인강도와 도적들, 색정적음악이 판을 치고 사람들의 정신문화생활을 마비질식시키는 나라 등 실로 나라마다 사회악의 이모저모도 천태만상이였다.

나는 조국을 멀리 떠나볼수록 평양의 모습이 그리워졌고 평범한 나날에는 미처 다 느낄수 없었던 조국의 경치, 조국의 사회풍토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가늠하게 되였다.

아침의 해빛이 아름답고 곱다고 조선이라 불리우는 내 나라는 경치가 하도 좋아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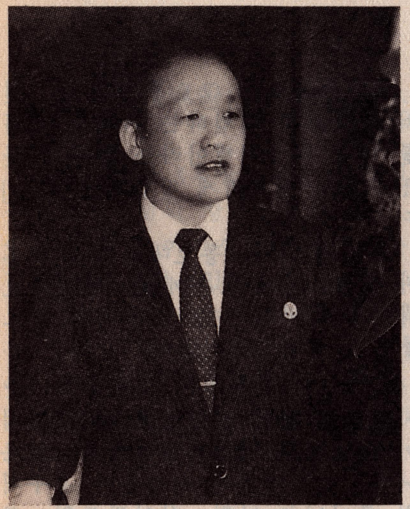
금수강산 내 나라의 마을과 도시들은 류달리 풍요하고 깨끗하고 산과 들에는 오곡백과가 주렁진다. 사람들은 누구나 식의주에 대한 걱정, 치료받을 걱정, 배울걱정, 세금걱정 등을 모르고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살아간다.

그래서인지 나에게는 이국의 들가에 피여난 꽃도 내 나라의 꽃보다 곱지 못하게 느껴졌고 이국의 벗들이 부어준 한모금의 물도 어머니가 떠주는 내 고향의 샘물처럼 달지 못함을 느꼈다.

이국에서 한 교포를 만났을 때였다. 그는 우리 대표단의 한 배우가 부른 민요를 듣고 고국산천의 모습을 죽기전에 한번이라도 보고싶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것이였다. 그러던 그가 몇해전 4월의 봄축전이 열렸을 때 사회주의조국땅을 밟아보는 소원을 풀고 축전무대에서 아리랑민요를 마음껏 부르는것을

42 페지에 계속

나의 자서전



나는 이 글에 《나의 자서전》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물론 나의 가정형편과 내가 자라난 환경, 생활경위를 구체적으로 적는다는 의미에서의 자서전이라 하기에는 글의 내용이 너무도 빈약하다는 생각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37년간의 나의 생애에서 있었던 몇가지 사실들을 놓고도 독자들에게 얼마전까지 내가 살던 남조선사회와 그 사회에 속해있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일정한 리해를 줄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펜을 들게 된다.

나의 고향은 경기도 양주군 남면 홍방리이다.

서울에서 60키로메터 떨어진 이 시골에서 우리 가정은 농사를 지었다. 남조선에서는 농촌을 두고 《3다3무》란 말이 통용되고있다. 여기서 《3다》란 빚이 많고 휴경지가 많으며 리농인구가 늘어난다는 말이며 《3무》란 젊은이가 없고 지을만한 농사거리가 없으며 로동의 대가가 없다는 뜻이다.

근면을 인생의 근본으로 여기는 고지식한 우리 부모님들은 궁색한 살림을 펴볼가 하여 논밭농사는 물론 누에치기, 과실장사까지 하며 허리펼새없이 돌아갔건만 각종 세금과 종곡비, 비료대, 기계사용비 등을 물고나면 역시 조반석죽의 처지를 면할수 없었다. 내 우로 형님들은 농촌에서 못살겠다고 도회지로 나가버렸다.

나는 엄청난 학비때문에 노상 부모님들을 울리며 간신히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성적은 높은 편이였으나 빈한한 우리 집 형편에서 상급학교에로의 진학은 꿈도 꿀수 없었다. 부모님들은 마음을 붙이고 착실히 농사일을 하느라면 차차 살림이 펴일거라고 울적해하는 나를 위안하였지만 어쩐지 나에게는 그것이 묘연하게만 생각되였다.

나는 도시야 그래도 시골보다 낫겠지 하는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서울로 갔다. 나는 며칠동안 신고한 끝에 자그마한 인형공장에 취직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서울에 대한 나의 기대는 물거품처럼 되버리고말았다. 하루 14시간의 고된 로동끝에 차례지는 돈은 한끼 밥값도 되나마나했다.

번화한 서울도 역시 돈많은 사람들에게는 천당이지만 맨주먹밖에 없는 나같은 인생들에게는 역시 고혈을 빼앗기는 채취장일따름이였다. 나는 두달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말았다.

그무렵에 아버지는 내가 몹시도 측은해보였던지 남의 빚을 내면서까지 라지오를 한대 사왔다.

그때부터 나는 한적한 시골에서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라지오를 벗삼아 인생의 고독감을 풀군하였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의문은 더 커지기만 했다. 어째서 우리같은 사람들은 평생 쪼들려 살아야만 하는것일가?

1973년 초봄경이라고 기억되는데 어느날 밤 나는 무심코 라지오의 다이얄을 돌리다가 이북방송을 듣게 되였다. 처음엔 당황하였으나 그 내용이 마음에 들어 문을 단단히 잠그고 이불속에 숨어들어 라지오에 귀를 기울이였다. 《꽃파는 처녀》라는 제목의 가극이 방송되고있었는데 착취사회에서 시달릴대로 시달리는 꽃분이일가의 이야기가 가슴에 파고들어 저도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그때부터 나는 몰래 이북방송을 듣군하였다. 이북은 우리같은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이 주인된 세상이며 빈부의 차이가 없이 누구나 꼴고루 산다는 말이 몹시도 마음에 들었다. 정말로 이북이 그런 사회라면 얼마나 리상적일가.

나는 결단코 이북에 한번 가보리라 작정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로서도 놀라울 일이였지만 그때는 한창 혈기왕성해지는 사춘기라 그런 엄청난 일도 쉽게 결심할수 있었던것이다. 당시 내 나이는 열일곱살이였다.

나는 부모님들께 얼마간 서울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북쪽을 향해 길을 떠났다. 점차 검문소들이 늘어나고 단속이 심해졌지만 나이보다 훨씬 체소하고 어려보였던 나는 예상외로 쉽게 빠져나오군하였다. 분계선이 가까워지자 나는 산발을 탔다. 이틀만에 나는 군사분계선철조망앞 150메터 지점까지 접근하였다. 정작 분계선을 넘자니 더럭 겁이 났다. 그래서 우물쭈물 망설이던중에 《국군》순찰병에게 붙잡히고말았다. 나는 즉시로 《국군보안부대》에 압송되였다.

취조관들은 누구의 조종을 받고 월북을 기도했는가, 무슨 임무를 받았는가고 따지였다. 내가 시킨 사람도 없고 임무를 받은적도 없다고 대답하자 그들은 다짜고짜로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을 하였다. 나중에는 군용전화기로 전기고문까지 들이댔다.

그후 나는 서울지방법원에서 1년 6개월간 감금형을 받았다. 이북과 관련된 사건들을 매우 엄중시하는 남조선사회 형편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형이라 할수 있었다. 아마도 내가 아직 미성년이고 순수 호기심때문에 월북을 기도했다는 변호사의 말이 어지간히 통했던 모양이였다.

어쨌든 나는 《사상범》이라는 어마어마한 감투를 쓴채 1973년 5월에 대전교도소로 갔다. 아직은 철부지나 다름없는 내가 하루아침에 대단한 사상가로 둔갑한 셈이였다. 대전교도소에는 3천명가량의 수감자가 있었는데 그중 내가 제일 나이 어렸다.

감옥에는 20년이상 수감생활을 해오는 비전향장기수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높은 인격의 소유자들이였다. 나는 이런 참된 인간들을 타매하고 매장해버리는 남조선사회가 끝없이 저주스러웠다. 서리찬 감옥은 나에게 인생의 참의미를 깨우쳐주는 학교로 되였던것이다.

나는 1974년말에 만기출소될 때까지 끝끝내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보안관찰처분》(어디에 갈 때마다 해당경찰에 신고하고 자기의 일거일동을 보고해야 하는 처벌형태)이 내 발목을 붙들었다. 게다가 《사상범》딱지가 붙어있어 취직도 할수 없었다.

나는 별수없이 집에 붙박혀 부모님들의 농사일을 도왔다. 하지만 이북방송을 듣는것만은 그만두지 않았다.

그무렵 나는 통일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돌렸다.

내가 옥고를 치른것이 많은 경우 국토의 분단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기때문이였다. 이북에서는 통일을 최급선무로 내세우고있었으며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었다. 철저한 대미의존정책을 실시해온 력대 남조선《정권》의 처사와 상반되는 북의 자주적인 립장과 자세에 나는 열렬히 공감하였다.

그러던 1979년 어느날 나는 몰래 서울국립도서관에 가서 통일관계서적들을 비롯한 금지서적들을 탐독하였다. 그러던중 내 뒤를 밟고있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였다.

나는 악명높은 《반공법》위반혐의로 기소되여 3년 징역형을 받았으며 두번째로 대전교도소에 끌려가게 되였다. 나는 무섭게 항변하였다.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원하는 통일에 관심을 둔것이 무슨 죄냐고.

무자비한 구타와 모욕, 학대가 뒤따랐다. 이렇게 3년이 지나갔다.

지긋지긋한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오니 모든것이 암담하기만 하였다. 마치 아찔한 절벽끝에 선듯한 감정이였다. 주거제한처분으로 하여 집주변을 떠날수도 없었다. 2년동안 적용된다는 이 처분은 그후 7년동안이나 나를 괴롭혔다.

부모님들과 형님들은 나를 결혼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상대로 나섰던 처녀들은 나의 과거를 알고는 왜서인지 슬그머니 물러나버리는것이였다. 남조선사회에 대하여 자그마한 애착도 없는 나로서도 구태여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나는 극도의 절망감에 몸부림쳤다. 차라리 이 사회에 항거하여 목숨을 끊을 생각도 불쑥불쑥 나군하였다.

그러나 나는 한가지 희망으로 모질어지는 마음을 달래군하였다. 그것은 10여년전부터 품어온 월북의 길이였다.

북에는 7천만 겨레가 흠모하여마지 않는 **김일성**주석과 그분의 뜻을 받들어 민중을 위해 옳은 정사를 펴나가시는 **김정일**지도자께서 계신다.

그분들의 품에 운명을 맡기는 길이 막바지에 이른 나의 인생을 구원하는 길이며 참된 재생의 환희를 맛볼수 있는 길이였다.

1989년 9월에야 나에 대한 주거제한처분이 해제되였다. 지난해 2월 김영삼《문민정권》이 출범하자 나도 많은 사람들처럼 일루의 기대를 가져보았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환상》은 여지없이 깨져버렸다. 《정권》은 바뀌였으나 파쑈적인 악법들과 탄압기구들은 여전히 남아있었으며 민중에 대한 폭압의 도수는 한층 고조되였다. 남조선사회는 변함없이 정의와 진리의 동토대였으며 민주와 자유의 무덤이였다.

나의 월북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것으로 되였다.

하늘이 나를 도왔다 할가 지난해 8월 나는 우연히 제3국에 나오게 되였다. 나는 두달가량 그곳에서 기회를 노리던 끝에 마침내 월북에 성공하였다.

오래동안 갈망해오던 소원이 성취되던 그때의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우주를 한가슴에 받아안은듯싶었다.

내가 이곳에서 느낀점들을 여기에 다 적을수는 없다. 다만 한가지 부언하고싶은것은 이남의 거리들과는 판판 다른 평양의 순수하면서도 이채로운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밝은 얼굴표정이며 당당한 걸음걸이를 보며 생활에 대한 자신심을 한껏 느꼈다는 점이다.

독자들은 앞으로 생활의 새로운 궤도에 들어선 나의 자서전 속편을 계속하여 읽게 될것이다.

박홍달

새로 만들어낸 의료용변성종이

최근 김만유병원에서는 주사약을 생산할 때 꼭 필요한 새로운 의료용종이를 연구해냈다.

이 병원에서는 이것을 《의료용변성종이》라고 부르고있다.

김만유병원의 주사약제제과에서 한해동안에 생산해내는 주사약은 참으로 대단하다. 하루에 만들어 이 병원 자체가 쓰는것만도 수백병이나 된다.

이 주사약들은 어김없이 멸균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바로 이때에 의료용종이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쓰고있는것은 수입의료용종이였다.

(한번 쓰고 버리는 이것을 어디에나 있는 우리의것으로 만들수는 없겠는가.)

이곳 약생산자들은 이것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낼것을 결심하고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새로운 의료용변성종이를 만들어냈다.

그들이 연구한 새 제품은 열과 물기에 견딜힘이 매우 세기때문에 종전의것은 한번 쓰고 버렸다면 이번의것은 네번을 다시 쓸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또한 원료가 아주 풍부하다. 다 쓴 학습장, 도서들뿐아니라 지어 상품포장종이까지도 원료로 된다.

그리고 생산공정이 단순하면서도 생산속도가 매우 빠르다. 복잡한 기술조작이 없고 원료가 풍부하며 시약도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한가지뿐이기때문에 주사약을 만드는 도, 시, 군, 리 인민병원을 비롯한 어디에서나 자체로 만들어 쓸수 있다.

이 제품은 지금 의약품생산에서 큰 은을 나타내고있다.

고향소식

어랑의 봄

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차창밖으로는 봄날의 그윽한 향취가 흘러간다.

넓은 벌에서 뜨락또르가 밭을 갈고 농장원들이 씨앗을 묻는다.

내가에서 버들피리를 부는 소년, 어미소옆을 맴돌며 뛰박질을 하는 송아지.

피여오르는 아지랑이속에 살구꽃, 복숭아꽃이 울긋불긋 피여나는 동네의 아늑한 모습이 다가온다.

한껏 향수를 풍겨주는 정경이다.

조국, 고향이란 무엇이기에 죽어서라도 가고싶어하는 그처럼 절절하고 애끓게 하는 그런것일가.

그게 무엇이기에 고향의 한줌의 흙을 쥐고 이국땅에 가서도 때없이 냄새를 맡아보는것일가.

지난 4월중순, 중국 길림성 연길시 창위구에서 사는 리동운동포가 고향인 함경북도 어랑군 어랑읍을 소개해달라고 한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렬차에 몸을 싣고가면서 줄곧 나는 이런 감상에 잠겼었다.

10대 소년기에 고향을 떴다고 한 그, 지금 어느덧 인생말년에 잡혔다고 하며 고향이 그립다고 편지에 썼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의 고향이 어떤 변모를 가져왔을가.

나는 궁금증을 안고 렬차에서 내렸다.

역전앞 좌우로 시원하게 뻗어간 도로, 그옆에 솟은 다층살림집이며 문화회관, 공공건물.

거리형성에 조화를 맞추어 독특한 형식으로 지은 편의봉사건물들이 거리의 이채를 돋군다.

북변에 자리잡은 어랑군소재지는 그 면모가 도시를 방불케 한다.

나는 어랑지방의 과거와 오늘을 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랑이란 이고장의 지명은 오랜 고려시기부터 불리웠다.

바다와 호수, 강에서 물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이 많다 하여 어랑이라고 이름지었다는것이다.

해방전 어랑은 락후한 농업지대로서 조와 수수, 피를 심었고 공장이라고 해야 고작해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군수용기름을 충당하기 위해 어대진에 세운 정어리기름을 짜는 자그마한 공장뿐이였다.

그때 공장주는 값눅은 로동력으로 소년로동자들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혹시 리동운동포가 그 고역을 당하지나 않았을런지.

나는 리동운동포의 넋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을것이 무엇일가 하고 더듬어보다가 이고장의 소년들이 즐겨 찾아가군한다는 장연호로 걸음을 돌렸다.

어제날 헐벗은 소년들의 물놀이터로밖에 되지 않던 호수가 오늘은 휴양지로 꾸려져 로동자, 농민들이 국가의 혜택으로 휴양을 한다.

나는 봉강덕에 있는 과수농장에서 일한다는 처녀휴양생을 만났다.

그는 내가 온 사연을 듣자 반색을 하며 어랑의 변모를 알려주자면 지방산업공장의 소개도 좋지만 전국에 맛좋고 크기로 이름난 《어랑추리》를 따들이는 봉강덕과수원소개가 더 좋다고 했다.

처녀는 이국에서 사는 리동운동포가 고향방문으로 어랑에 오면 꼭 봉강덕과일밭을 보게 하겠노라 했다.

그러면서 처녀는 새 세대청년들로 무은 청년과수작업반은 봉강덕과일밭을 더 확장할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하면서 날을 따라 과일나무도 자라고 과일밭도 더 넓어지고 자기들의 지식도 더 높아진다고 했다.

이땅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성실한 로동으로 고향땅을 꽃피워가는 처녀.

이국땅에 있건 조국에 있건 로세대이건 새세대이건 고향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한줄기로 이어지는것이 아닌가.

누가 심어주고 가르쳐준것도 아닌데 무엇이 그 귀중한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는것일가.

나는 구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밝혀볼 생각으로 다른 동포들의 고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본사기자

---

39 페지에서 계속

나는 목격하였다.

이러한 생활과 감정의 체험속에서 나는 꽃도 내 나라 꽃이 곱고, 물도 내 고향의 샘물이 달고, 노래도 아리랑곡조가 좋다는 내용의 가사를 1, 2, 3절로 창작하게 되였다.

내 나라라고 하여 따스하고 애착을 간직하게 해주는 그런 감정이 저절로 생기는것은 아니다.

지난날 한많던 우리 조국을 오늘 온 민족이 포근한 감정과 긍지를 안고 찾고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높이 받들고 굳건히 지켜가고있는것은 바로 모든것을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참다운 정치가 이땅에 펼쳐지고있기때문이다.

비행기를 타고 조국땅에들어설 때 동포라면 누구나 한결같이 간직하게 되는 숭고한 감정이 있다.

그것은 한폭의 그림과 같이 안겨오는 조국땅을 부감하느라면 스스로 내 나라를 인민의 락원으로 세우시고 가꾸어가시는 우리의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북받치는 흠모의 정이다.

나는 이러한 사상감정을 노래의 4절부문에서 해와 별 비치여 밝고 정든곳, 내 다시 안길 땐 절을 하였소 라고 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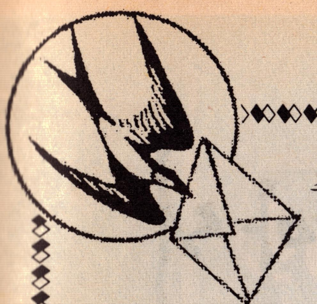
노래의 가사를 잘 지었다는 많은 사람들의 찬탄의 목소리가 나의 귀전에 들려오지만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가사에 우리 시대의 정신, 오늘에 와서 더욱 열렬하게 타오르고 확고한것으로 굳어진 민족의 신념을 그대로 담았을뿐이다》라고.

✤ ✤

조국에서는 최근 몇해사이에 노래《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가지고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을 창작하여 방영하고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이 있다는 심오한 철학을 안겨주는 이 영화들은 시대의 걸작들로 되여 조국과 해외의 동포들속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있다. 이것은 나의 커다란 기쁨이기도 하다.



중국 길림성 화룡현 화룡시 공구공장 황길복 앞

상봉의 그날을 그리며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이 보는 일과 형수님의 상점일은 다 잘되고있는지요. 귀여운 조카 경희, 경화들도 몸성히 공부를 잘하고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함북일보사 특파기자인 길선형님, 청진철도관리국에 다니는 길남형님 그리고 우리옆에 사는 길석동생과 가족들은 다 건강한 몸으로 잘 지내고있습니다.

혈육의 정이란 어쩔수 없군요.

기쁜 일이 생길 때면 자연히 이국땅에 계시는 형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지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에 마음이 허전해지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필을 들었는가 봅니다.

고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지금 혁명적경제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일에 매진하고있습니다.

형님도 아시겠지만 고국에서는 변화되는 내외정세와 새로운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한데 기초하여 앞으로 3년간을 완충기로 정하고 농업과 경공업, 무역 제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갈데 대한 혁명적경제전략이 제시되였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우리 인민모두를 더 유족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우리 당의 의도가 담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있기에 우리 가정에서도 모두가 혁명적경제전략을 관철하기 위하여 떨쳐나서고있습니다.

비록 해외에서 살아도 고국의 현실을 잘 알고계실 형님이기에 더 쓰지는 않으렵니다.

형님의 고국방문기간에 군대에 입대한 맏아들 철민이도 군사복무를 잘한답니다. 그는 편지에서 형님의 소식을 자주 묻군합니다. 이젠 제법 어른이 된듯도 합니다. 글쎄 전번 편지에는 그 어떤 대적이 덤벼든대도 자기네 초소는 철벽이라나요. 나어린 제아들의 말이라고만 생각되지 않더군요.

오늘과 같은 복잡한 정세속에서 무력으로 나라의 안전을 담보하고있는 이런 자식을 초소에 두고있다고 생각하니 부모된 자랑과 긍지가 느껴집니다.

집에 있는 네남매들인 철주, 철룡, 현희, 철히도 무료교육의 혜택속에서 부러움없이 공부하고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오누이쌍둥이인 현희, 철히의 재능의 싹을 귀중히 여겨 키워주고 내세워준답니다. 열두살난 현희는 지금 매일 공부가 끝나면 길주팔프공장 체육선수단에서 륙상훈련에 열중합니다. 애가 얼마나 오돌차고 이악한지 사내애들과 달려도 등수권에 든답니다. 매일 몇십키로메터씩 달리기훈련을 하고도 피곤한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생긴 체질인지 달리고 또 달려도 숨차하지 않지요. 때로는 힘들어하는것 같아 쉬라고 해도 훈련에 빠지는 때가 없군요.

지난해 평양에서 진행된 전국체육경기대회를 보고와서 제일 인상깊은것이 무엇이더냐고 묻는 어머니의 물음에 녀자륙상선수가 결승테프를 끊고 시상대에 올라 우승메달을 받는것이였다고 대답하더군요.

전문가들은 현희가 장차 훌륭한 륙상선수로 자랄것이라고 확언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가 공부를 제일 잘한다고 과학자로 키우겠다나요. 그 일로 해서 며칠전에는 학교와 체육선수단의 《마찰》이 생겼습니다. 아이의 장래를 부모보다 사회와 집단이 더 극성스럽게 생각해준답니다.

철히와 철룡이도 학교체육소조에서 권투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될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다지만 다섯자식을 키워도 언제 한번 걱정해본 일이 없어요.

그저 소원은 조국통일입니다. 형님에게 부탁이 있다면 조국통일성업에 더 분발해달라는겁니다. 그리고 조카들도 부디 고국을 잊지 않게 힘써주십시오.

형님, 그럼 이만하렵니다. 안녕히!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7반 황길만 올림



황길만 가정

방문기

남자롱구선수단을 찾아서

얼마전 기자는 올해 8월에 카나다의 토론토에서 진행될 세계롱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게 된 우리 나라 남자롱구선수단을 찾아갔다.

선수들은 경기를 앞두고 평양시 청춘거리에 자리잡고있는 롱구관에서 맹훈련을 하고있었다.

찾아온 취지를 듣고난 김무명책임지도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세계롱구선수권대회에 우리 나라 남자롱구선수들이 참가하게 되기는 처음입니다.

얼마전에 진행된 제17차아세아남자롱구선수권대회는 세계롱구선수권대회 지역별 예선경기를 겸한것이였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이 경기에서 2등을 하여 세계롱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였습니다.》

화제는 자연히 아세아남자롱구선수권대회경기과정에 있은 이야기로 넘어갔다.

2년에 한번씩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아세아남자롱구선수권대회의 련속인 제17차아세아남자롱구선수권대회는 지난해 11월에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쟈까르따의 이스트라롱구관에서 진행되였다.

이 경기에는 아세아의 18개 나라에서 온 우수한 롱구선수들이 참가하였다.

경기는 4개 조로 나뉘여 조별련맹전을 한후 승자전의 방법으로 1등부터 18등까지 순위를 결정하게 되여있었다. 우리 나라는 4조에 속하였는데 조에는 중국대북,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슈가 속하였다.

경기에 참가한 다른 나라 선수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조건에서 우리 선수들은 속공을 위주로 하면서 폭넓은 기동결합에 의한 먼거리성공률을 높이는 방향에서 경기를 진행하였다.

조별련맹전에서 승리하고 준준결승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선수들을 80 대 61로 이긴 우리 선수들은 준결승경기에서 이란선수들과 맞서게 되였다.

준결승경기는 세계롱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획득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기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우리 나라 선수들과 이란선수들과의 경기소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리명훈선수가 이란과의 준결승경기에서 전반전마감에 련속 득점을 하여 45 대 41로부터 51 대 41이라는 점수차이를 만들었다.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키가 제일 큰 리명훈선수의 경이적인 활약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자롱구팀은 후반전에서도 경기를 잘하여 이겼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은 2등을 하여 결국 세계롱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되였다. 우리 나라 선수들은 이번 선수권대회의 5개의 컵중에서 2개를 쟁취하였다. 그중 1개의 컵은 우리 롱구팀의 15번 리명훈선수가 받은 개별기술상컵이다.

개인별 득점순위와 판공순위에서 1등을 한 리명훈선수는 이번 경기에 참가한 200여명의 선수들가운데서 개인기술이 가장 우수한 선수로 인정되였다.

인도네시아 방송, 통신, 텔레비죤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롱구가 대단히 발전하여 아세아강자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였다고 전하였으며 신문들은 우리 선수들의 경기소식, 특히 리명훈선수의 활약에 대하여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기자는 김성일지도원을 통하여 리명훈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리명훈선수는 함경남도 고원군 수동탄광 탄부의 아들이다.

현재 그의 키는 2메터 32센치메터로서 체육계의 아세아인으로서는 가장 큰키이며 세계적으로도 손꼽힌다.

그는 장기에서 1등을 양보하지 않으며 서정적인 음악을 즐겨 듣는다. 침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다.

흔히 사람들은 그에 대한 외적인 표상만 가지고 키의 《덕》을 보는 선수일것이라고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민활한 몸동작, 성공률이 높은 륜밑공넣기, 높은 전술적의식 등을 보며 자기들의 생각을 달리하게 된다.

정신의식상태가 매우 좋은것이 리명훈선수의 주되는 장점이라고 김성일지도원이 덧붙여 말하였다.

세계롱구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은 맹훈련을 하고있었다.

속도가 빠르고 이악하며 정황에 맞게 경기조직을 잘하는 주장인 8번 정형만선수, 조약이 좋고 민활하며 공넣기성공률이 높은 13번 박천종선수…

선수들모두가 팀의 전술적의도에 맞게 높은 훈련목표를 세우고 개인특기들을 살리면서 합심하여 훈련하고있었다.

대인방어, 구역방어, 2인 및 3인결합, 공격과 방어의 유기적인 결합 등 기술훈련과 함께 세계롱구발전추세에 맞게 전술훈련을 강화하고있었다.

하루에 600개의 공넣기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훈련장을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

롱구관을 나서는 기자에게 정형만주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기성과는 빈말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지요. 보십시오. 이렇게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들이 조국을 빛내이는 메달이 될것입니다.

아세아남자롱구선수권대회에서 기성관념을 깨뜨린 그때처럼 세계롱구선수권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기 위하여 더욱 분발할것입니다.》

본사기자 김금숙



강한 의지를 키워간다



휴식의 한때

전술 토론과 훈련을 통하여 기술도 습득해간다





하루훈련을 마치고



사진 리히철



경기를 마치고



경기의 휠참에(쟈까르따의 이스트라룡구관에서)



경기를 진행하고있는 우리 나라 선수들



제17차아세아남자롱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나라 남자롱구선수단

조선특산

리원밥조개



우리 나라 동해안의 리원만에서 잡히는 밥조개는 이고장의 특산으로 알려져있다.

밥조개는 살이 많고 맛이 좋은 고급조개로서 살은 회감으로 많이 리용하며 말리기도 한다.

밥조개는 물 깊이가 10~50메터 되는 모래나 모래감탕판에서 산다.

알낳이시기는 5~7월사이인데 6월에 제일 많이 낳는다.

물속에서 수정된 알은 약 40일후에 새끼밥조개로 자란다.

새끼조개는 3년이면 엄지조개로 된다.

밥조개자원을 보호증식하기 위하여 나라에서는 보호구역을 정하고있으며 크기가 11센치메터 아래인것은 잡지 않으며 매해 5월부터 8월까지 보호기간으로 제정하였다.

민족음식

전복랭채

전복	200g	소금	3g
오이	50g	실고추	0.5g
파	10g	실지단	2g
마늘	5g	맛내기	1g
식초	5g	겨자	5g
사탕가루	5g	깨	1g
참기름	5g	간장	5g

①전복은 끓는 물에 데쳐서 살만 떼내여 깨끗이 손질한 다음 검은 둘레를 도려내고 0.3㎝ 굵기로 저며놓는다.

②오이는 껍질을 벗기고 전복과 같은 크기로 썬다.

③전복과 오이를 섞어 다진 파와 마늘, 사탕가루, 식초, 참기름, 간장, 소금으로 양념한후 실고추, 실파, 실지단으로 고명한다.

④접시에 무우채친것을 깔고 전복을 돌려 담은후 곱게 장식하여 낸다.





민속무용 《조천무》

폭넓은 단합을 위한 추동력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0.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 애국렬사들과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들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열번째 조항에서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할데 대하여 교시하심으로써 전민족의 폭넓은 단합을 실현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주체적력량을 확대강화하는 문제와 직결되여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공로에 대한 옳은 평가가 담보되여야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을 달리하는 각계각층의 민족성원들이 공동의 위업인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보다 깊은 관심과 비상한 열의를 가지고 적극 참가할수 있으며 통일을 두려워하거나 방관시하던 사람들까지도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설수 있다.

주석께서는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들을 밝혀주시였다.

주석께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이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훈을 세운 사람들, 애국렬사들과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푸는것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이며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사활적문제이다. 따라서 이 중대한 사업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푸는것은 마땅하다.

이러한 평가를 잘하는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참된 애국의 길에 나선 사람들에게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영생의 삶을 빛내여나가도록 할뿐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도 애국애족의 길에 발벗고 나서도록 할것이다.

평가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들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는것이다.

조국통일은 특정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전민족이 단결하여 일떠서야 이룩할수 있는 거족적위업이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민족대단결사상을 제시하시고 광범한 각계각층의 군중을 망라한 반일애국력량에 의거하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주석께서는 해방(1945. 8. 15)후에도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서 한때 민족을 배반했던 사람들까지 민족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서 함께 손잡고나아갈데 대한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시였다.

주석의 한없이 넓으신 도량과 포용력, 조선로동당의 광폭정치, 인덕정치에 감복하여 지난날 민족앞에 떳떳치 못하게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불미스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애국애족의 길에 들어섰으며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위업에 바친 공헌에 대한 응당한 평가를 받고있다. 그들중에는 지난날 반공의 길을 걷다가 해방직후 조국통일의 념원을 안고 련공련합의 애국의 길에 나섰던 김구선생도 있으며 지난 시기 남조선의 군부와 정계의 요직에 있으면서 친미반공의 길을 걷다가 생의 말년에 조국통일운동대오에서 겨레와 함께 나아감으로써 내외동포들에게 민족의 화합과 대단결의 참뜻을 깨우쳐준 최덕신선생도 있다.

주석께서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들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할데 대하여 밝히신데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온 민족의 힘을 합쳐 조국통일위업을 다그치며 지난날 떳떳치 못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에 세워주시려는 높은 뜻이 담겨져있다.

주석께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운동에 나선 사람들의 공로에 대한 평가를 잘할데 대하여 밝히신것은 민족성원모두가 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을 위한 성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 힘있는 추동력을 마련해주신것으로 된다.

참으로 주석께서 천명하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온 겨레가 민족구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게 하는 통일애국의 홰불이며 한때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들까지도 나라의 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에 나서서 새 출발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고무적기치이다. 이것은 민족대단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경애하는 주석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의 뚜렷한 표시이며 위대한 광폭정치, 인덕정치로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시려는 고매한 덕성의 구현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주석께서 천명하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따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금메달을 받은 녀성과학자

지난 9월 17일 농업과학원 개성 인삼연구소 실장 림광야는 세계 발명 및 저작소유권기구로부터 금메달과 상장을 받았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사회에서는 비범한 기질을 가진 사람뿐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다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이미 반백이 넘은지 오래되는 녀성발명가 림광야는 성실한 과학자이다.

1992년초 세계 발명 및 저작소유권기구에서 우리 나라 과학자들이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놓고 심의하였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끈것은 조선의 녀성과학자 림광야가 제출한 론문《인삼의 1대잡종육종》이였다.

인삼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인삼의 새 품종육종도 가치있는 발명으로 주목되였지만 한 녀성연구사의 한생이 이 연구에 바쳐졌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그가 인삼연구에 대한 뜻을 가지게 된것은 조국땅에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던 1951년 여름부터였다.

그해 봄 전선동부의 어느 한 무명고지공격전투에 참가했던 그는 부상을 입고 만포전상자병원으로 후송되게 되였다.

병원에 입원한지 보름되던 날 광야는 감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였다.

후방인민들이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건강을 념려하여 올린 인삼을 그이께서 병원의 전상자들에게 보내주셨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인삼을 보내주시면서 고려인삼은 조선의 자랑이라고 하시며 인민들이 인삼보약재를 많이 쓰게 하는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광야는 그 인삼을 받은 날부터 한가지 생각을 안고 모대기였다.

어떻게 하면 장군님의 그 소원을 풀어드릴가 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전쟁이 끝난후 농업대학에 갔고 졸업후에는 인삼연구소로 갈것을 지망했다.

그때 학우들은 그의 지향을 두고 고려해볼것을 권고하였다.

인삼은 여느 작물과 다른 차이점을 가진다.

한해살이로 결실이 이루어지는 작물과 달리 인삼은 심어가꾸어서 거두어들이기까지 6년이라는 긴 생육기간을 요구한다.

실패와 성공, 과학은 이 반복과정을 거치면서 성공의 탑을 쌓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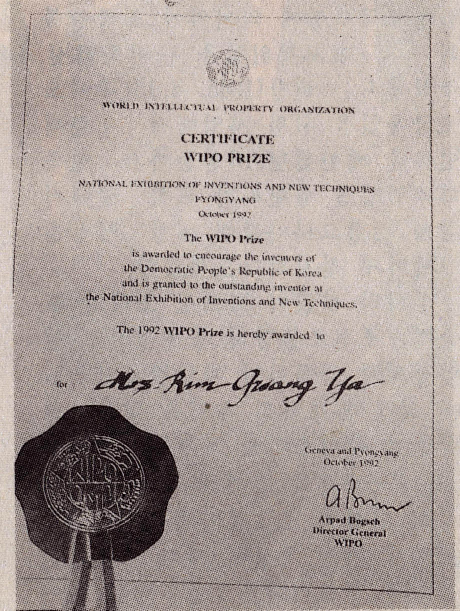
그런데 6년의 긴 생육기간을 요구하는 인삼을 언제 반복순환시키면서 부족한것을 찾아내고 새것을 살리며 부단한 갱신을 이루어놓겠는가.

광야는 그들의 권고를 받아들일수가 없었다.

힘들다고 물러서고 험하다고 피해갈 그런 일이 아니였다. 그는 자기의 속깊은 뜻을 기어이 이루어볼 결심을 더욱 굳히였다.

인삼연구소에 배치된 처녀연구사는 어떻게 하면 인삼의 수확고를 높일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탐구를 거듭해나갔다.

여기서 토양조건이나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시되는것은 생육기일을 줄이는것이였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ERTIFICATE
WIPO PRIZE

NATIONAL EXHIBITION OF INVENTIONS AND NEW TECHNIQUES
PYONGYANG
October 1992

The WIPO Prize
is awarded to encourage the invento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is granted to the outstanding inventor at
the National Exhibition of Inventions and New Techniq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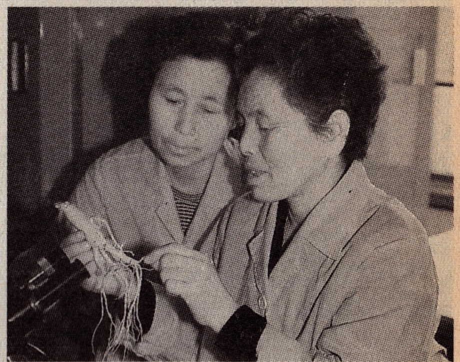
The 1992 WIPO Prize is hereby awarded to

for Mrs Rim Gwang Ya

Geneva and Pyongyang
October 1992

Arpad Bogsch
Director General
WIPO

세계 발명 및 저작소유권기구에서 받은 상장



림광야(오른쪽)

이것은 우리 나라 과학자들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과학자들이 관심하는 문제였다.

그리하여 학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였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전진은 없었다.

광야가 연구소에 배치된 때로부터 두해가 흘러간 여름날, 개풍군 남포리에 있는 인삼시험포전에서 인삼을 가꾸어가던 그의 눈길이 한포기의 인삼에 못박혔다.

다른 인삼보다 류달리 싱그럽고 투실한 고려인삼은 그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었다.

인삼의 생육기일을 줄이자면 지금 인삼과 전혀 다른 새 품종의 인삼을 육종해내야 한다.

그러자면 고려인삼의 원종을 찾아내야 하며 그 원종에 혈통이 먼 다른 종의 인삼을 교잡시키면 새 품종의 인삼이 육종되지 않겠는가.

처녀연구사의 착상은 연구집단의 지지를 받았다.

광야는 인삼포전을 다니며 인삼종을 분류하는 사업을 다그치는 한편 금강산과 묘향산, 오가산 등 산삼의 산지를 찾아 험준한 산발을 탔고 가파로운 벼랑을 톺아올랐다.

참으로 우리 나라 인삼종이 분류되고 고려인삼의 원종이 찾아진데는 한 녀성과학자가 몇해를 두고 기울인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다.

그는 새 품종의 인삼을 육종하기 위해 고려인삼원종에 혈통이 먼 황색종을 교잡시켰다.

실패 또 실패, 새 품종은 좀처럼 얻어지지 않았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연구대상을 바꿀것을 권고하며 성공이 묘연한 연구를 계속하다가는 나중에 자기에 대한 혐오와 환멸로 가슴을 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녀성과학자는 단호히 머리를 저었다.

실패하는 경우 불행할지언정 환멸은 없을것이다, 당에서 바라는 새 품종육종에 자기를 바쳐왔다는 량심의 총화를 떳떳이 지을수 있게 성실히 일해왔다면 나는 그이상 더 바랄것이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고 한다.

새 인삼품종의 육종을 자기 삶의 목표로, 전부로 여기고 애써온 녀성과학자에게 과학은 성공의 첫 문을 열어주었다.

림광야가 남포리시험포전에서 고려인삼의 새 품종을 본것이 저녁무렵이였다.

이게 꿈일가, 생시일가. 광야는 보드라운 땅을 헤치고 나온 인삼의 새싹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다.

그날밤 그는 이 소식을 연구소에 알리기 위해 30리 길을 달렸다.

그해부터 녀성과학자는 열두해를 인삼포전에서 보냈다.

그 기간 새로 육종한 1대잡종의 어린 인삼모의 생육상태를 살피기 위해 포전에서 밝힌 밤은 또 몇밤이던가.

고마운것은 연구소집단이였다.

장마철에 비바람이 불어쳐도 한밤중도 아랑곳없이 달려나와 인삼이 피해받지 않게 대책을 세웠고 연구에 필요한 일이라면 그어데도 마다하고 천리길을 뛰여다녔다.

1992년 10월 농업과학원 개성인삼연구소시험포전에서는 새로 육종된 인삼을 수확하였다.

토종 인삼보다 생육기일이 절반가까이 단축된 1대잡종은 크기와 무게에서 차이가 없었고 성분함량도 같았다.

새 품종의 인삼을 손에 정히 든 림광야는 평양이 있는 북쪽하늘가를 이윽토록 바라보았다.

본사기자 조광열

리제마

리제마는 19세기 우리 나라의 탁월한 의학자이며 애국자이다.

그는 1837년 3월 오늘의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태여났다. 출생후 3개월만에 어머니를 여읜 그는 그후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조부모의 슬하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난 리제마는 여섯살에 벌써 조부모에게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일곱살때부터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다.

어느날 서당훈장은 그에게 비《우》(雨)자를 가지고 시를 써보라고 하였다. 리제마는 조금도 주저하는 빛이 없이 즉석에서 시를 한수 지었는데 다음과 같았다.

> 비온 뒤에 창포(잎이 긴 풀)는 씻은 칼 같고
> 바람앞에 약한 풀은 소인같아라

어린 아이의 재간이라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인 이 시를 보고 서당훈장은 놀란 나머지 《나의 자격으로는 이 아이를 맡아 키울수 없다》고 하면서 리제마를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다.

집으로 돌아온 리제마는 조부모의 도움으로 어려운 한자글의 뜻을 풀어가면서 8살때부터 유교경전을 읽기 시작하여 15살때에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통달하였다.

리제마의 조부모는 손자가 너무 영민하고 엉뚱하므로 장차 큰일을 저질러서 집에 무슨 화가 미치지 않을가 은근히 걱정하였다. 그래서 어린 나이의 손자를 장가보내서 분가시켰다. 그것은 손자로 하여금 공부는 적당히 하고 일생동안 농사나 지어먹게 하려는 속심에서부터였다.

그러나 향학열에 불타는 리제마의 지향을 꺾을수 없었다. 그는 농사를 짓는 한편 공부에 열중하였다.

어데 책이 있다는 말만 들으면 그는 식량을 등에 지고 그곳으로 가 여러날씩 묵으면서 그 책들을 모조리 읽고서야 발길을 돌리군하였다.

리제마가 성장하고 활동한 시기는 우리 나라에서 리조봉건사회가 점차 붕괴되여가는 과정에 외래자본주의세력의 침략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전개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때 리제마는 나라와 인민을 위해 당장 필요한 공부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군사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가지 많은 병서들을 짊어지고 백두산지구로 들어가서 몇년동안 직심스레 군사학을 연구하였다.

그다음 당당한 무관의 자질을 갖추고 집으로 돌아왔다.

38살 되던 1875년에 리제마는 무관벼슬에 등용되였다. 그런데 다음해에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일본침략자들과 굴욕적인《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다.

《강화도조약》으로 말하면 당시 일본침략자들이 우리 나라를 병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저들의 군함《운양호》를 서해의 강화도연안에 침입시킨 다음 그것에 대한 조선군대의 발포를 구실로 조선에 대한 침략을 더욱 로골화할 목적으로 강요한 강도적인 불평등조약이였다.

리조봉건정부는 일본침략자들과 싸울대신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한것으로 대답하였던것이다.

리제마는 무능하고 비겁한 리조봉건정부의 처사에 격분을 금치 못해 하면서 나라에 드리운 비운을 통탄해마지 않았다.

이때부터 리제마는 썩어빠진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무관벼슬을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리제마의 후반생은 천도교에서 일컫는《광제창생》(백성들을 널리 구제한다는 뜻)이라는 새로운 선택점에서 방향각을 바꾸게 되였다.

그는 자기 식의《광제창생》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어 그들이 병마의 구속에서 벗어나 오래오래 살게 하려는 지향에서 찾았다.

벼슬살이에서 물러나 집으로 돌아온 그는 조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논밭을 모두 가난한 농민들과 머슴들에게 나누어준 다음 다시 집을 떠나 의주의 한 절간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시간을 아껴가며 의학서적들을 탐독하였다.

리제마가 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다른 하나의 동기는 그에게 어릴적부터 심장협심증이 있었기때문이였다.

나이가 들면서 협심증이 자주 발작하여 괴로움을 겪고있던 그는 여러 의원들에게 병을 보였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날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나이많은 선비가 그에게 엄하게 충고하기를 《병

이란 원래 절반은 사람의 정신에 달려있다. 병을 고치려면 우선 과격한 성격부터 삼가하라》는것이였다.

리제마는 이 충고를 명심하고 자기의 과격한 성격부터 고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렇게 한 보람이 있어서인지 몇년후 고질로 되여있던 협심증이 깨끗이 나아졌다. 여기에서 리제마는 새로운 의학적소견을 찾아보게 되였다.

그것은 병이란 인체의 내부변화나 외부환경의 변화만이 아닌 사람의 정신상태에도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였다.

이런데로부터 리제마는 사상의학 즉 네가지의 《정신적의학》에 대해 독특한 견해를 수립하였다. 그 네가지란 바로 사람의 정신속에 들어있는 교만성과 사치, 게으름과 라태, 리기심과 탐욕이였고 다른 하나는 성격이 조폭하고 부드럽지 못한것이였다.

리제마는 이 네가지 정신적요소를 발병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았다. 그는 사람의 체질을 네가지모양 즉 4상—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나누고 같은 병이라도 상에 따라 그 증상이 다르다는것과 체질에 따라 약의 작용이 다르다는 자기의 독창적인 학설을 내놓았다.

리제마의 독창적인 발견이라고도 할수 있는 사상의학론은 사실상 의학사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견해이다.

리제마는 자신의 병치료경험과 다른 사람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경험, 진지한 리론적탐구와 림상연구를 통해 사상의학의 내용을 풍부하게 채웠다.

그는 당시 우리 나라에서 대단히 명성높은 의학전문가였다.

리제마는 일생동안 여러권의 가치있는 의학서적을 집필하였는데 어느 한 책에서 그는 사람이 오래 살수 있는 비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첫째로는 검박과 절약이다. 검박한 사람은 사치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다. 둘째로는 근면이다. 근면한 사람은 술마실 시간이 없으며 밥맛 잃을 걱정이 없다. 셋째로는 경계심인바 권세와 탐욕, 리기를 좇아 두뇌를 쓰지 않는것이다. 넷째로는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쌓는것이다. 그렇게 하면 권세나 재물을 탐내지 않게 된다.》

리제마는 항상 가난하고 근면한 사람들을 깊이 동정하였으며 가난한 집의 환자에 대해서는 돈한푼 받지 않고 치료해주었다. 때로는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보아주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인민들로부터 《어진사람》이라는 높은 평가와 존경을 받았다.

반면에 리제마는 권세를 부리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관료배들을 끝없이 증오하였다. 그들이 치료를 요구해오면 리제마는 이 구실, 저 구실을 붙여가며 응해주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해 늦가을에 있은 일이다.

리제마가 세상에 없는 명의라는 소문을 들은 한 부자가 그를 찾아왔다.

부자는 그에게 소화불량증에 걸려 죽을 지경인데 돈을 많이 주겠으니 고쳐달라고 하소연하였다.

리제마는 부자의 맥을 짚어보더니 대뜸 《이 병에는 백약이 무효이니 돌아가는게 좋겠다》고 진단을 내렸다. 그러자 그 부자는 절망에 잠겨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정하였다.

《한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당신같은 량반으로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할수 없지 않는가.》

리제마가 이렇게 말하니 부자는 그래도 죽기보다는 나을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간청하였다. 그제야 리제마는 《집으로 돌아가면 매일 밭에 나가서 강냉이뿌리를 50포기씩 5일간 뽑고나서 다시 오라》고 일렀다.

평생 일이라곤 해본적이 없는 그 부자는 하는수 없이 자기 소유지의 강냉이밭으로 가서 강냉이뿌리를 뽑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사흘째되는 날부터는 소화가 잘되고 밥도 많이 먹게 되였다.

리제마의 이 치료법은 사상의학에 기초한것으로써 사치와 무위도식만을 일삼으며 라태하게 지내는 량반관료들에 대한 일종의 교양이기도 했다.

리제마는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놓고 마음을 놓지 못하는 우국지사였다.

어느날 그는 당시 우리 나라의 왕이였던 고종으로부터 《지금 사방에서 〈도적〉(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을 의미함)들이 봉기하니 관악산(우리 나라 산 이름)에 가서 거기가 피난처로 될만한가를 알아보라》는 명령을 받았다.

왕의 분부를 받은 리제마는 그 산에 가보지도 않고 며칠후 국왕을 만나 대답하기를 《피난하지 않아도 〈도적〉을 막을 방책이 있나이다.》

《그게 뭔고? 어서 말해보라.》

고종은 크게 기뻐하면서 대답을 독촉했다.

자칫하면 왕의 말 한마디에 목이 날아나는 판인데도 리제마는 왕과 조정을 풍자하여 이렇게 말했다.

《대포 네문이 있으면 만족하나이다. 궁궐성의 네 대문에 포를 한문씩 걸어놓고 포아구리를 돌려 성안에 있는 큰 도적무리부터 없애치운다면 외부의 〈도적〉들은 저절로 물러갈것이옵니다.》

성안의 도적무리란 국왕을 비롯한 반동적인 량반관료배들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국왕은 독같이 성이 났으나 나라형편이 매우 어려운 때여서 리제마의 대담하고 애국적인 소행에 기가 꺾여 감히 그를 처벌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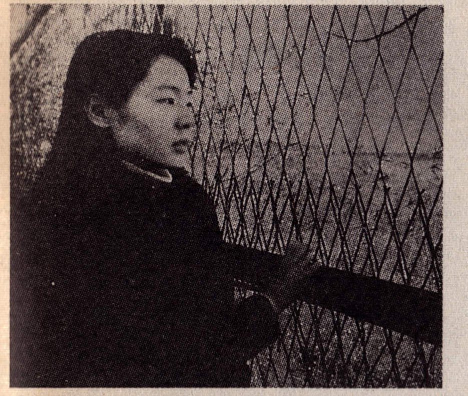
그후에도 리제마는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우려하면서 시급히 3~4년어간에 10만명의 군대를 양성해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애국적인 발기는 국왕을 비롯한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에 의해 묵살되였다.

우리 인민이 낳은 재능있는 사상의학자 리제마는 한생을 열렬한 애국자로, 명의로 활동하다가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속에서 1900년에 63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본사기자 리영호



출옥후 림수경



《우리 조국은 하나입니다. 통일조국을 위해 7천만이 하나가 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이것은 1989년 여름 평양에서 진행된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였던 남조선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 림수경이 한 말이다.

분단의 장벽에 통일의 파렬구를 낸것으로 하여 겨레의 가슴에 지울수 없는 여운을 남긴 《통일의 꽃》 림수경.

우리는 그가 판문점을 통과하여 남쪽땅에 들어서자마자 《안전기획부》에 끌려갔으며 이어 3년 5개월동안 옥고를 치르었다는것을 알고 있다.

림수경은 1992년 12월말에 가석방되였다.

출옥 당시 그는 몹시 수척했으나 그늘 한점 없이 밝고 환한 얼굴표정이며 활달하고 당당한 몸가짐은 여전하였다 한다. 때묻지 않은 마음이 내비치는 사랑스러운 모습이라 하겠다.

림수경은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앞으로 《…고마운분들의 은혜에 꼭 보답하겠다》고 했으며 자신은 《들꽃》이 되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지난해 1월초 림수경은 출옥후 첫 걸음으로 북녘땅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림진각을 찾았다. 그와 동행하였던 남조선잡지 《말》 기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썼다.

《림진각 10km.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겨울풍경을 차창으로 물끄러미 바라보고있던 림수경은 더이상 달릴수 없는곳이 가까와졌음을 알리는 도로표지판이 휙 지나치자 입을 삐쭉거렸다.…

그는 더이상 갈수 없는곳까지 걸어가 녹쓴 철조망에 손을 얹었다.》

림수경은 이곳에서 평양방문의 나날에 친숙해졌던 꼬마시인 김일신이 쓴 시 한수를 젖은 목소리로 읊었다.

사진 찍자요 림수경언니
언니 얼굴 내 얼굴 어디가 다른가
뽈났다고 하던 사람 뽈 찾다가 해
저물게
우리 함께 사진찍자요

한동안 감회에 잠겨있던 그는 기자에게 북녘산천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어줄것을 요청하였다.

림수경은 림진각을 떠나는 길로 전주에 가서 방북기간 운명을 같이 했던 문규현신부를 만나 회포를 나누었으며 4년전처럼 《우리의 소원은 통일》노래를 함께 불렀다.

림수경은 자기가 공부하던 서울의 외국어대학교도 방문하고 스승들, 후배들과 상봉하였으며 남조선잡지 《사회평론》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자기의 소신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방북때 만난 많은 사람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다. 내가 석방된데 대하여 그들도 지금 매우 기뻐하고있을것이다. 그들은 앞으로도 내 모습을 지켜볼것이라고 본다. 나는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저 열심히 노력하련다.》

림수경은 지난해 3월 부산에 있던 리인모선생도 만났으며 그의 조국에로의 귀환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남조선의 텔레비죤방송은 림수경을 소개해달라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못이겨 그를 취재하였으며 《안기부》는 이 기회에 림수경의 《변화된 심경》을 보여줄 작전을 하였다.

그러나 텔레비죤앞에 나선 림수경은 자신의 방북을 두고 《최선을 다했던 그때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전대협》의 평양축전참가를 주도하였던 임종석, 전문환 등 학생들을 극구 찬양하였다. 결국 편집물의 방영은 중단되고말았다.

림수경은 광주인민봉기 13돐에 즈음하여 열린 《5.18정신계승국민대회》에 참가하여 통일운동에 최선을 다할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여러 기회에 《문민》의 간판을 건 현《정권》이 국민의 의사를 저버렸다고 단죄하였다.

림수경은 지난해 8월, 7년반만에 대학을 졸업하였다. 교정을 나서면서 그는 《비록 남들보다 뒤늦게 졸업하게 되였지만 지나온 시간동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해왔기때문에 결코 늦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림수경은 앞으로 《언론사에서 일하고싶다》는 의향을 표시하였는데 주목할만한 일이다.

그는 력대 《전대협》 의장들이 다 망라되여있는 《동우회》란 조직에 관여하고있으며 애국인사석방과 수배해제를 위한 일에 매우 적극적이다.

본사기자 박용호



림수경과 그의 가정

아픔의 5월에 부치여

5월!

자연의 순리대로 또다시 5월이 왔다.

사람들은 이 계절의 향긋한 정서와 가슴부푸는 희망으로 하여 제나름의 즐거움에 잠길수도 있으리라.

허나 나는 이 계절이 찾아올 때면 소리없이 흐르는 눈물로 심혼을 적신다.

광주사람치고 이 5월을 부둥켜안고 울지 않는 사람이 어데 있으랴.

5월은 내 사랑하는 고향도시 광주땅에 너무도 깊이 박힌 수난의 상처를 상징하거늘…

14년전인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불법철권으로 정권을 강탈한 전두환, 로태우 일당의 군사파쑈통치를 반대하여,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여 과감한 투쟁에 궐기했다.

항쟁의 불길은 순식간에 광주시전역을 휩쓸었고 린근 지역으로 급속히 퍼져갔다.

전두환, 로태우 일당은 환각제를 먹인 공수특전대원들을 광주로 내몰면서 그것을 《화려한 휴가》라고 묘사했다.

술에 탄 환각제를 마시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공수대원들은 피를 본 야수마냥 날뛰였으며 광주시민들을 남녀로소 가리지 않고 짐승사냥하듯 마구 죽이였다.

고등학교 녀학생들의 옷을 벗겨 그들을 전주대에 매달고 유방을 도려냈으며 임신부의 배를 대검으로 찔러 태아를 끄집어내고 지어는 땅에 쓰러진 봉기자들을 땅크의 무한궤도로 깔아뭉갰다.

아! 순식간에 《피의 목욕탕》으로 변한 광주, 그 처절한 광경을 무슨 말로 담아낼수 있으랴.

나는 원래 마산에서 조그마한 무용학교를 경영하던 녀자였다. 교육의 여가를 타서 광주에 있는 친척집에 놀러 왔다가 공수대의 만행을 목격하게 되였다.

처음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하였으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공수특전대의 만행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것을 보고 차마 발길을 돌릴수가 없었다.

나는 첫날에는 너무도 무섭고 끔찍하여 울음을 터뜨렸으며 그 다음날부터는 공수대의 만행을 놓고 치솟는 격분을 느끼였다. 그대로 있다가는 80만 광주시민전체가 죽음을 당할수 있었다.

끓어오르는 의분에 떠밀린 나는 거리로 달려나가 항쟁군중들앞에서 웨쳤다.

《여러분! 선량한 광주시민여러분! 죄없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죽어가고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린 다 죽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공수대를 몰아내고 광주시를 수호합시다!》

그날부터 나는 스스로 가두방송원이 되여 여기저기로 뛰여다니며 선동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배고픈 생각도, 잠자고싶은 생각도 없었다. 광주사람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뿐이였다.

한 소년은 폭동지휘부로 찾아와서 《우리 누난 저놈들의 화염방사기에 불타죽었어요. 나에게도 총을 주세요. 우리 누나처럼 싸우겠어요》 하고 울며 애원했다.

소총을 받아든 그 열세살 난 소년은 전투장으로 달려나가 누나처럼 싸우다가 죽었다. 항쟁군중속에는 이런 나어린 소년이 많았다.

다른 한 나어린 소녀는 거리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부상당한 아버지, 오빠, 언니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시민여러분! 헌혈하자요! 헌혈하자요!》 하고 가냘픈 음성으로 목이 쉬도록 웨쳤다.

10살을 갓 넘긴 그 소녀도 공수대의 기관총에 몸이 벌둥지가 된채 쓰러졌다.

무장한 광주의 봉기자들은 끝내 공수부대의 악착한 공격을 물리치고 열흘동안이나 도시를 장악하였으며 이곳을 자유의 해방지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파쑈분자들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그들의 살륙만행을 공공연히 부추겼다.

미국의 비호를 받은 전두환, 로태우 일당은 장갑차와 미싸일까지 장비한 5만여명의 무력을 광주에 투입하였다. 그리하여 광주봉기는 5,000여명의 희생자와 2만여명의 부상자를 내고 무참히 진압당했다.

군사파쑈무리들의 행동은 그야말로 적국의 인간들을 대상하는 야만적인 전쟁행위였다.

광주사태후 나는 군사파쑈분자들에게 체포되여 1년동안 갖은 고문과 악행을 당했다. 그들은 나를 《북의 간첩》이라고 몰아댔으나 내가 평범한 한 시민에 불과하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놈들의 고문만행의 후과로 인하여 녀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말았다.

정녕 5월은 내 고향의 아픔의 계절이고 내 삶의 아픔의 5월이다. 그런데 분격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이른바 《문민정권》을 표방하는 현 김영삼《정권》의 《문민파시스트》행위이다.

김영삼역도는 광주시민들에 의해 응당 처단되여야 할 전두환, 로태우를 경찰무력으로 보호해주고있으며 광주의 아픔에 여전히 칼을 박고있다.

지난해 5월 광주봉기 13돐을 계기로 광주 시민들과 청년학생들이 광주사태진상규명, 그것을 배후조종한 미국의 사죄, 학살주모자 처형, 조국통일 등을 요구하여 일어났을 때에도 방대한 경찰무력을 내몰아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부상시켰다.

아아! 정녕 아픔의 5월은 물러간것이 아니라 해마다 새로운 아픔을 우리에게 더해주고있다.

군복대신에 사복을 갈아입은 현 김영삼《정권》의 파쑈행위는 전두환, 로태우 일당의 《5공》, 《6공》 때와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다. 그들의 반민주, 반통일 행위는 《5공》, 《6공》 때의 수법을 릉가할뿐이다.

그러나 새 력사의 대문이 열리려던 그 시각은 영영 가버린것이 아니다. 그날의 장엄한 추억은 우리 광주사람들의 가슴속에 그대로 살아있거늘 미구에 환희의 5월은 찾아오리라.

우리 광주시민들은 그날에 이루지 못한 민주, 통일을 기어이 투쟁으로 성취하고 외세가 없는 땅, 파쑈가 없는 세상에서 자유의 새 삶을 구가할것이다.

(필자는 1980년 5월 광주봉기 참가자의 한사람)

《경제소생공약》과 현실

남조선에서 지난 《대통령선거》때 각계의 최대 관심사는 죽어가는 경제를 소생시키는 문제였다.

경제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여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대두하였던것은 바로 그때문이였다.

이때 김영삼역도는 어떻게 하나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고 관권, 금권을 총동원하였으며 사람들의 귀맛을 당기는 숱한 《경제공약》들을 내돌렸다. 그는 《경제를 살리는 일을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최우선과제》로 삼고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느니, 《해묵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성역없는 비리척결》을 하겠다느니, 《중소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느니, 뭐니 하며 수많은 《경제공약》을 하였었다.

그러나 역도의 《공약》들은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위선자의 《장미빛공약》에 불과했다.

김영삼괴뢰역도가 한 그후의 행동과 그로부터 초래된 남조선경제파국상이 그것을 실증해준다.

김영삼역도는 권력을 쥔후 《경제개혁》이요, 《신경제》요, 뭐요 하면서 자기가 파국에 처한 남조선경제를 건질수 있는듯이 요란스럽게 떠들었다.

그러나 놈은 력대 괴뢰들보다 더 극성스럽게 사대매국적이며 반인민적인 시책에 매달렸다.

이른바 《신경제 100일계획》기간에 역도는 금리를 낮추어 매판재벌들에게만 숱한 리자지불을 면제해주고 매달 많은 자금을 그들에게만 지출하여 그들을 살찌워주었다. 놈은 《정부예산》을 아껴 《중소기업구조개선》을 하겠다고 하고서도 중소기업에는 사실상 자금지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판재벌들은 괴뢰도당으로부터 부여받은 《특혜》를 공간으로 중소기업을 더욱더 략탈하였다.

김영삼괴뢰의 집권초기부터 남조선에서는 생산의 감퇴와 수출위기, 통화팽창, 물가폭등, 대량적인 기업파산 등이 빚어졌다.

지난해 상반년동안에 대일무역적자만도 44억 1,000만딸라에 달하였고 농림수산물의 무역거래에서도 24억 500만딸라의 적자를 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6월까지 4.2%나 올랐다.

중소기업들의 생산지수는 지난해 1.4분기에 그전해 4.4분기보다 5.6%나 떨어졌다. 실업률은 지난해 상반년도에 1987년이후 최악의 상태를 나타냈다.

김영삼역도는 자기의 《임기중에 실천된 경제정책의 청사진》이라는 요란한 광고밑에 《신경제 5개년계획》을 내놓은후 경제를 더욱더 말아먹었다.

특히 역도가 떨어지는 자기의 인기를 추세워보려고 갑작스레 발표한 이른바 《금융실명제》는 경제전반에 무서운 파국적후과를 가져왔다. 주식가격이 폭락하고 수많은 업체들이 자금난에 걸려 파산되는 사태들이 련쇄적으로 일어났다. 《금융실명제》실시이후 불과 한달남짓한 기간에 무려 1,000여개의 기업체가 파산당한 사실만 봐도 《실명제》후과가 얼마나 큰가를 잘 알수 있다.

지난해 10월 남조선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업체의 65.6%가 판매부진으로, 21.9%가 자금난으로 위기를 겪고있었다. 지난해 10월에 서울지역에서는 하루동안에 62개의 업체가 파산되는 사태도 일어났다. 건설부문에서만도 지난해 10월중순까지 234개의 기업체가 파산당하였다. 남조선의 한 은행은 남조선에서 지난해 9월에 770여개, 10월에는 950여개의 기업체가 파산당했다고 공식발표하였다.

업체들이 대량적으로 쓰러짐에 따라 무더기해고바람이 일고 실업자는 더 크게 증가하였다. 수많은 대학졸업생들도 직업을 얻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고있다.

김영삼괴뢰도당은 더 많은 통화를 발행함으로써 지난해 8월의 통화증가률이 20.3%에 이르게 하였다. 통화팽창은 그대로 물가상승에로 이어져 지난해 8월 현재 물가는 5.3%나 뛰여올라 괴뢰들이 내세웠던 《물가억제》목표도 무너지고말았다.

주민들이 《실지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1.5~2배로 올랐다.

공업뿐아니라 농업도 파괴되였다.

김영삼역도는 농축산물시장개방을 전제로 한 반동적인 《신농정》을 강압적으로 실시하여 지난해에 《1980년이래 최대의 흉작》을 몰아왔다.

지금 남조선 농민들과 인민들은 대흉작으로 《굶어죽게 되였다》고 아우성치고있다.

형편이 이러함에도 김영삼역도는 최근 자기의 불순한 정치적야욕을 위해 남조선 쌀시장을 전면개방하는 사대매국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쌀시장개방만은 막겠다》던 공약을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농촌을 파멸시키는 쌀시장개방을 미국상전과 밀약하고도 그런 일이 없었던것처럼 속여온 김영삼역도를 《거짓말의 왕초》로 락인단죄하고있다.

남조선 변호사 김제완은 《〈정부〉가 그동안 쌀개방을 안하겠다고 공언해오다가 하루아침에 립장을 바꾸어 쌀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한것은 국민을 기만한 처사》라고 말하였으며 전라북도 《의회의원》 리경해는 《농촌은 이제 끝장났다. 이런 상황이 올것을 알고도 지금까지 쌀만은 사수하겠다고 강조해온 〈정부〉의 행위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것이며 철저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김영삼역도의 이러한 민족반역행위는 남조선 농업과 경제전반, 인민생활을 더욱 엄중한 국면에로 몰아가고있다.

본사기자

겨레의 지향

반통일적죄행을 규탄

카나다에서 발행되는 교포신문 《뉴 코리아 타임스》가 김영삼《정권》의 반통일적죄행을 규탄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김영삼《정권》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반통일적자세를 강화하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분노를 일으키고있다고 썼다.

신문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는 반민족이 친일과 반독립으로 나타났다면 오늘의 반민족은 반통일에서 나타난다고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정권》은 날이 갈수록 반민족집단으로 더욱 전락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신문은 이 《정권》이 미국으로부터 남조선에 《패트리오트》미싸일을 끌어들이려는 사실에 격분을 표시하고 《이런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가로막고있는 세력을 더이상 권좌에 있도록 내버려두는것은 민족적 수치》라고 하면서 김영삼《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것을 호소하였다.

모스크바조선인로병위원회에서

재로씨야교포단체인 모스크바조선인로병위원회가 비전향장기수로 수십년동안 남조선감옥에 갇혀있었던 김인서, 함세환 로인들의 공화국북반부 송환에 협조를 요구하여 최근 국제적십자사에 서한을 보내였다.

서한은 김인서, 함세환이 전쟁포로이며 그들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 직후 응당 공화국북반부에 송환되였어야 할 사람들이였다고 지적하였다.

서한은 인도주의적사명을 지닌 국제적십자사가 그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대책을 세울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출판물교류협회 독자들에게 알림

현재 우리 협회는 이미 예약된 동포독자들에게 신문과 잡지를 정기적으로 배포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년간 일부 독자들중에서 직업상 혹은 생활상 리유로 주소가 달라져 출판물을 받는데서 애로를 느껴 협회앞으로 많은 편지들을 보내오고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를 우리 교류협회에 신속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소에는 편지구분대호, 나라이름, 도시와 거리 이름, 건물번호와 층, 주택번호, 사서함번호, 독자이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여야 하며 나라마다 주소표기법에서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출판물을 받을수 있는 정확한 주소를 교류협회앞으로 보내야 합니다. 기관이름과 직무, 사서함번호가 필요없는 독자들은 주소에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례 : 113149 로씨야련방공화국 모스크바시 뻬르보마이쓰끼구역 레체브나야거리 16호동 5호실 한득봉

동포들이 신문과 잡지를 받아보려면 조선출판물교류협회에 예약하여야 합니다. 고국의 소식을 기다리는 동포들은 협회앞으로 속히 편지를 보내여 예약해주기 바랍니다.

교류협회에서는 독자들중에서 오래동안 소식을 알려오지 않아 련계가 끊어진 독자들은 이상이 있는것으로 알고 당분간 새 주소를 보내올 때까지 출판물발송을 중지하였음을 알립니다.

조선출판물교류협회 주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중구역 영광거리

전화번호 : 37306
텔렉스번호 : 37018 EPB KP
확스 : 850—2—814632

본사편집부

고화

사신도



주작



현무



청룡



백호

고화 《사신도》는 네 방위를 맡아본다는 신들을 그린 그림이다.

해와 달, 별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했던 옛사람들속에서 28개의 별을 각각 7개씩 동서남북으로 나누고 그 7개의 별들이 널려있는 모양을 따서 동쪽에는 청룡(푸른룡), 서쪽에는 백호(흰범), 남쪽에는 주작(붉은새), 북쪽에는 현무(거북과 뱀) 등 네개의 환상적인 동물을 그리고 그것을 네 방위를 맡아본다는 《신》의 상징으로 여기는 사상관념이 있었다. 지배계급들은 저들의 권세를 시위하고 그를 영원히 지켜보려는 욕망으로부터 무덤을 비롯한 건축물들과 공예물들에 사신도를 많이 그렸다. 특히 고구려의 무덤들에 많이 그렸으며 그중 대표적인것은 강서세무덤의 사신도들이다.

강서세무덤의 사신도들은 선의 강약과 색채의 질음새 및 색배합에 이르기까지 높은 회화적기교를 남김없이 보여주는 훌륭한 그림들이다.

북쪽을 지킨다는 환상적인 동물인 《현무》는 거부기의 몸에 뱀이 휘감겨있는 모양을 그린것이다. 거북의 몸을 휘감고도는 뱀이 탄력성있는 원을 그리면서 화면중심에서 거북과 머리를 마주하고있는 그림은 화면구성에서 빈틈없이 째인 구도, 힘있는 선, 화려한 색 등이 유기적으로 통일조화되여있으며 립체감과 질감을 훌륭히 나타내고있다.

남쪽을 지킨다는 환상적인 동물인 《주작》은 붉은새를 형상한 그림이다. 붉은색을 위주로 하면서 다채로운 색갈로 된 날개를 활짝 펼치고 붉은알을 입에 물고 방금 날아갈듯한 자세로 서있는 새의 형상은 마치 살아있는 아름다운 새를 보는듯한 느낌을 준다.

서쪽을 지킨다는 환상적인 동물인 《백호》는 구체적인 산범의 특징을 살려 사나운 이발과 불길이 이는듯한 눈, 힘있게 내뻗친 앞발과 구불구불 추켜올린 꼬리 등을 박력있게 그림으로써 억센 기상이 넘쳐나고있으며 또한 가슴에 불날개를 달아 신비감과 속도감을 나타내고있다.

《청룡》은 동쪽을 지킨다는 환상적인 동물의 형상이다. 앞가슴에 세차게 나붓기는 불날개에서는 기백이 넘치고 률동적인 자세에서는 빠르면서도 가볍게 날아가는 운동감을 잘 나타내고있다.

이 벽화들은 소재의 추상성으로 하여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있으나 사나운 짐승들의 특징적인 표상을 나타냄으로써 강한 기백과 살아움직이는듯한 느낌을 준다. 여기에는 당시 고구려인민들의 강의하고 진취적인 기상이 반영되여있다. 특히 이 그림들은 활달한 필치와 선명한 색채의 표현 등에서 당시 조선화의 높은 발전수준과 인민들의 풍부한 예술적재능을 잘 보여준다.

《사신도》의 훌륭한 조형적형상은 높은 회화예술을 시위하는 우리 인민의 훌륭한 문화유산으로서 세계미술사상 귀중한 자리를 차지한다.

